



[트포] 보유세 개편 후... 거래절벽 아래 숨은 강남3구 부동산 03



Economy

코스피	2257.55 (-7.91)	코스닥	794.05 (-5.05)
금리 (국고채 3년)	2.09 (-0.02)	환율 (원/달러)	1118.60 (+4.10) (5일)

올해 출산율 1%도 위태 육아부담 줄이고 삶의 질 높인다

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됨에 따라 정부가 저출산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약 5만명에게 150만원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임신부와 1세 아동의 진료비도 사실상 '0'원에 가깝도록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70년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5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의 '2017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전년 40만 6200명보다 4만 8500명(11.9%) 감소했다. 감소 폭도 2001년(-12.5%) 이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합계 출산율은 1.0명 아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는 약 32만 명으로 더 줄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이런 추세가 지속할 경우 최악에는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30만 명대로 무너지고 20만 명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출생아 수 30만 명 진입은 애초 통계청이 장래인구 추계를 통해 내다본 전망보다 18년이 나 빠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단순히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도 활용의 문턱은 대폭 낮추면서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통신기자 grandtrust@]

청년 취업 넓히려 '중년 명퇴' 강요

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

<2> 금융 일자리

금융권, 청년 일자리 위해 희망퇴직 성과따라 보상도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아 세대간 갈등 조장 지적도

"올해 은행권의 희망퇴직 대상자가 67년생(만 50세)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정년은 줄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한국의 고용현실이 참담하다. 청년 일자리에 긴 암운(暗雲)에, 중년의 눈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취업률 하위권, 노인 빈곤율 1위인 한국의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이해하기 힘든 해법을 내놓고 있다.

바로 '희망퇴직' 촉진이다.



4050세대 중년 은행원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를 청년 채용으로 채우려는 것. 정부가 나서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조장하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청년 실업해소·일자리 늘리기 대책은 결국 '웃돌 빼서 아랫돌 고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희생으로 일자리 만드나

금융당국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희망퇴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의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은행이 퇴직금을 올려 희망퇴직을 활

성화해 청년에게 더 많은 은행 취업 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희망퇴직을 확대한 은행에 보상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희망퇴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한 취업보에 억지로 물꼬를 트려는 정부의 압박에 은행권의 입장도 당혹스럽기만 하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을 내보내려는 희망퇴직의 취지는 현재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년층의 희망퇴직을 통해 청년의 채용문을 넓히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위협받자 일찍 퇴직해 65세까지 소득이 없는 '은퇴 크레바스' 문제가 사회 문제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핀테크 상용화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은행권은 '다운사이징(downsizing)'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 지점 수는 최근 5년(2013~2017년)새 14% 가량 줄어든 상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별 업무처리비중'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은행 창구에서의 입출금과 자금 이체 거래 비중은 전체의 9.5%였다. 창구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한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영업점 수가 줄어 들면서 창구 거래에 수수료를 받는 일부 은행도 생겨났다.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다는 방증이다.

[3면에 계속]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한부모 가족도 주거 지원

'문재인 홈' 본격시동

앞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못지않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대상은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행복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가 없었다. 앞으로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된 물량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부모 가족에 대해 영구·매입·전세 임대는 1순위 자격

을 부여하고, 국민·분양전환 임대는 우선·특별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특별공급과 할당 물량도 한부모 가족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부모 가족과 신혼부부 물량 양쪽에 중복 신청해 당첨되는 경우 당첨이 모두 취소된다.

또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이용할 경우 가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인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된다.

현재 혼인 기간 3년 이내는 3점, 3~5년은 2점, 5~7년은 1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자녀 나이가 만 2세 이하면 3점, 2~4세는 2점, 4세 초과는 1점을 주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금 구입·전세자금금리도 우대된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이용할 때와 비슷한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세종=최신통신기자 csh9101@]



"누가 왔습니까?" 5일 판문점 T2회담장에서 북한 인민군 병사가 교황청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 일행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 선정

집값 상승률 낮은 노원·은평 등 12개구

강남4구·마포·용산 등 제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은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와 마포·성동·용산구가 후보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평균(4.92%)보다 낮은 노원·도봉·금천·강북·중랑·은평·관악·동대문·종로·구로·서대문·강서 등 12곳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을 포함하는 대신 집값 누적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부동산시장에 불안이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의 평균 집값 누적 상승률은 4.92%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도시재생 뉴딜 후보지 신청 자격이 주어진 자치구는

총 12곳이다. 기준지표는 한국감정원이 공표하는 주택종합 매매 가격지수다.

후보지 중 노원구의 집값 누적 상승률이 1.53%로 가장 낮았다. 이어 도봉구 2.15%, 금천구 2.29%, 강북구 2.44%, 중랑구 2.62%, 은평구 2.72%, 관악구 2.75%, 동대문구 3.47%, 종로구 3.92%, 구로구 4.03%, 서대문구 4.35%, 강서구 4.51%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이후 집값이 뛰면 사업 착수 단계에서 사업 중지 또는 연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6일까지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한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시가 제출한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ik1@]

“소나기는 피하자”... 거래절벽 아래 숨은 강남부동산

르포 | 강남3구 부동산 중개업소 가보니

보유세개편 후 ‘관망세’ 파장 미미
“평균 7천~8천만원 사는 부자들
보유세 2백만원 부담 안느길 듯”
서울 증여건수 전년비 2.38배 ↑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특히 고가(高價)주택,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개편 권고안 발표를 전후로 관망세가 뚜렷하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분위기도 차분하다.

현직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수십 억원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거래 없다”... 발길끊긴 중개업소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 강남권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아크 로리버파크 일대 중개업소 대부분은 방문객이 없어 한산했다. 문의·방문이 잦은 퇴근 시간대에도 최근 발길이 뚝 끊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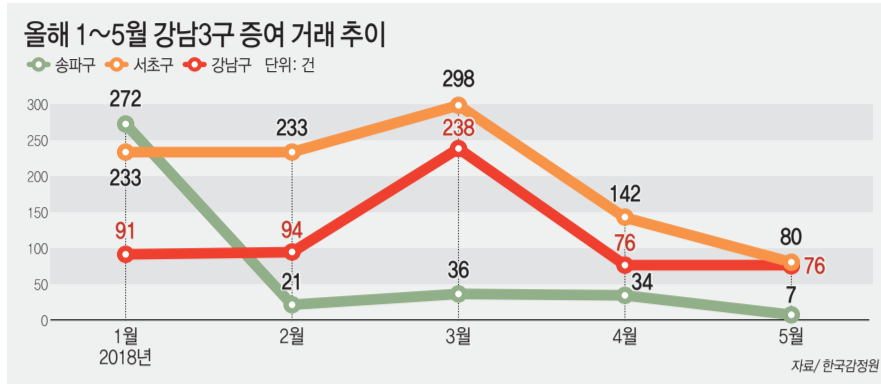
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였다.

A중개업소 관계자는 “4월 양도세 증과 시행 전에는 거래가 꽤 있었는데 보유세는 이미 예상했던 이슈라 그런지 문의도 별로 없다”며 “움직일 사람들은 이미 움직여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중개업소가 밀집한 상가로 가 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더운 날씨에도 손님이 없어 에어컨도 켜지 않고 부채질을 하는 직원도 있었다. 전화벨조차 울리지 않았다. 바로 전날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나왔지만 시장 분위기는 덩그러니었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유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부터 단계적으로 높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서울도 동시에 인상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집값이 비쌀수록,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늘어났다. ‘집 사서 돈 버는’ 투기 수요를 막으려는 조처



다. 아울러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매해 최종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 개편에 따른 세 부담이 매매로 이어지긴 힘들어 보인다.

B중개업소 관계자는 “평균 7000만~8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100만~200만원을 더 못내겠느냐”며 “보유세 관련해서 문의나 얘기가 없는 거로 봐선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

◆ 팔지 말고 물려주자?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에 주택 보유자들은 매매보다 증여로 눈길을 돌리는 추

는 셈이다.

임대사업 등록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는 7625명으로 1년 만에 51.5% 늘었다. 양도세 증과 시행 전인 3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3만5006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보유세 개편안이 나오기 전인 5월에도 7625명이 늘었다.

이런 추세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이다. 특히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수요에 대한 강도 규제를 지속, 주택시장의 관망세도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매매량은 6만77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 감소했다.

전국 주택거래량은 지난 3월 17만6910호에서 4월 13만5798호, 5월 13만8016호로 줄고 있다. 서울도 3월 3만3600가구에서 4월 1만8594가구, 5월 2만538가구로 하락했다.

서초구도 같은 기간 2017가구에서 지난달 844가구까지 떨어졌다. 송파구도 1620가구에서 560가구로 떨어졌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구입자금대출 개선(안)〉 /자료=국토교통부

구분	신혼부부 전용대출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현행유지(7천만원)	6천만원 → 생초·신혼·2자녀 이상 7천만원
대출한도	2억 → 2.2억(2자녀 이상 2.4억)	2억 → 신혼부부 2.2억, 2자녀 이상 2.4억
금리우대	기본금리1.70~2.75% → 자녀 우대금리 도입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0.5%P)	기본금리2.25~3.15% → 자녀 우대금리 강화 (1자녀 0.2, 2자녀0.3, 3자녀 0.5%P)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요〉

구분	내용
가입대상	· 만29세 이하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프리랜서 등 비근로소득자까지 대상 확대
청약기능	· 청약가능 부여(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가입기간 인정)
금리	· 연간 600만호 한도 최고 3.3% 적용(일반대비 1.5% ↑)
비과세	·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신혼 88만쌍 혜택·청년주택 27만실 공급

‘문재인 홈’ 본격시동

임기 말까지 총 163만가구 지원
청년우대 청약통장 이달말 출시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말까지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호 추가된 10만호가 공급된다. 청년주택은 2만실 늘어난 27만실, 기숙사 공급 규모는 1만명 늘어 6만명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신혼부부 최대 88만 쌍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기존 목표 7만호에서 10만호로 늘어났다.

23개소에 1만3000호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국토부는 서울에서도 신혼희망타운용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 가치가 낮은 그

린벨트를 적극 활용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했다. 10만호 중 2022년까지 분양되는 4만5000호를 제외한 5만5000호는 2023년 이후 분양된다.

또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10만호를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국민·공공은 15%에서 30%, 민영은 10%에서 20%로 늘린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기본 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한도가 2000만원 더 늘어난다. 자녀 수에 비례한 우대금리도 신설돼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가 각각 부여된다.

그동안 주거복지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한부모 가족의 내집 마련 기회도 늘어난다. 월평균 소득 205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은 현재 누리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프로그램에 신혼부부 지원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들의 걱정도 줄어든 전망이다. 국토부는 맞춤형 청년주택을 27만실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총 14

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제공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 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 공급한다.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도입한다. 1만명(5000호)을 지원, 입주인원을 6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달 말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놓는다.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다. 연간 600만호에 한도 최고 3.3% 금리를 적용한다. 일반 청약과 비교해 1.5%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10년간 매월 20만원씩 납입할 경우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합해 일반 청약 통장보다 241만원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잠재 수요자는 근로소득자 50만명을 포함해 약 75만명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보증부 월세대출, 전월세대출 1인가구 지원,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중기 청년 보증금 지원, 버팀목 전환대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출시한다.

/채신화 기자

4대 은행 1년간 명퇴금 ‘1조’

>> 1년 ‘불편한 경제...’서 계속

◆인생 반환점에 퇴직이라니...

올해에도 은행권의 인력감축은 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은행권에선 희망퇴직이 일반화됐다.

은행권은 중간관리자의 비율이 높은 향아리형 인력구조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채용도 많았다. 또 비대면 채널 확대에 따른 영업점 감소 추세 속에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초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았는데 780여명의 직원이 물렸다. 지난해(280여명)보다 2.8배나 많은 규모다.

기존에는 부지점장(부부장)급 이상이나 임급피크제(만 55세) 적용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한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연차와 나이 조건만 맞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하면서 신청이 늘었다.

실제로 이 은행의 올해 희망퇴직자의 대상은 근속연수 15년 이상으로 1978년 이전에 태어난 직원이다. 근속 조건에 따라 특별 퇴직금(8~36개월치 월급)을 추가로 주는데 신청자가 많아 마감일을 하루

연장했다고 한다.

희망퇴직을 늘리기 위해 은행이 치러야 할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다.

은행들은 희망퇴직 1명 당 3억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4대 주요 은행에서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로 희망퇴직을 받아 지출한 퇴직급여 비용은 모두 합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호모현드레드 시대(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인생의 반환점에 퇴직금을 가지고 떠나는 중년의 뒷모습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업계 일각에선 표면상으로는 희망퇴직제도를 희망하지만 조직의 분위기에 따르는 반강제적 퇴직이란 의견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이라는 것이 비취지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며 “아무리 큰 보수를 받고 나간 다해도 당장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희망퇴직’을 통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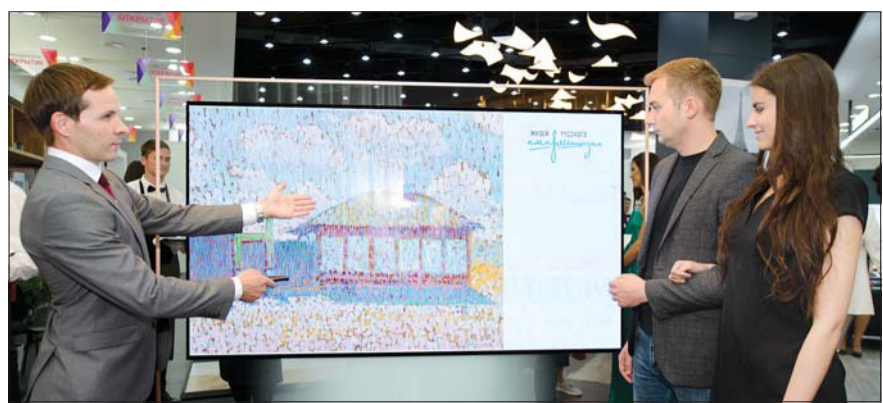
/유재희 기자 ryusoul91@



회의 불참한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 있다.

/연철뉴스



LG전자는 4일 메트로폴리스 물에 개장한 브랜드샵 오픈행사 참가자들이 올레드 TV 등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러 프리미엄 브랜드샵 오픈... 현지 공략

LG전자, 온라인 픽업존 등 마련

LG전자가 러시아에 LG 프리미엄 브랜드샵을 열고 현지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LG전자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대형 쇼핑몰인 메트로폴리스 물에 377㎡ 규모의 프리미엄 브랜드샵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픈행사에는 LG전자 CIS 지역 대표 겸 러시아법인장 이일환 전무를 비롯한 현지 언론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LG 클로이 청소로봇이 매장 주위를 청소하는 모습으로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LG전자는 고객들이 프리미엄 가전 L

G 시그니처(LG SIGNATURE)를 비롯해 ▲올레드 TV ▲인스타뷰 냉장고 ▲트윈워시 세탁기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 등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을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또한 진열되지 않은 제품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매장 곳곳에 설치하고,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온라인 픽업존도 마련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LG전자는 프리미엄 브랜드샵에서 축구경기 관람, 요리 교실 등 현지 고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안병도 기자

포스코, 중소·벤처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포스코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포스코는 지난 4일 포스코센터에서 제 15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는 벤처창업 희망자·초기 벤처기업·투자자들이 서로 만나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포스코에서 육성한 벤처기업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해 투자유치를 돕는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3개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111억 규모의 직접 투자를 실시하고 투자자와 벤처기업을 연결하는 활동을 통해 83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올해 포스코가 선발한 12개 벤처기업은 시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오·인공지능·전자상거래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끌 각사의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자인노블 신기영 대표와 예



지난 4일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 15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에서 참석자들이 벤처기업의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이런 오순봉 대표가 각각 최우수 스타트업상과 최우수 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

16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는 오는 11월 포항에서 열릴 예정이며, 포스코 벤처기업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나 벤처 기업은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ysw@



페루 시민들이 삼성전자의 초대형 LED 사이니지를 통해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질로 축구 경기를 즐기며 있는 모습. /삼성전자

삼성전자, 페루서 초대형 LED 사이니지 설치

삼성전자는 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 위치한 프리미엄 쇼핑몰 플라자 노르페에 중남미 최대 크기의 고화질 LED 사이니지 옥외 전광판을 설치했다.

이 사이니지는 가로 63미터(m), 세로 7.7m로 경차 85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크기를 자랑하며 최대 7700니트 밝기를 구현해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또한, IP65등급의 방수·방진 규격을 획득해 눈비가 오거나 뜨거운 햇볕에 지

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지진 발생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내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플라자 노르페는 월 400명이 방문하는 페루 최대 쇼핑몰 중 하나로 주변에 버스터미널과 음식점, 패션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번화가에 위치해 런던 피카딜리와 뉴욕 타임스퀘어 등의 전광판과 같이 중남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현대모비스, 9년만의 성과 보였다

친환경차 부품 매출 1조원 달성

‘2018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자율주행차 ‘엠빌리’ 확대 운영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부품 매출액 1조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발간한 ‘2018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는 현대모비스가 지난 2009년 친환경차 부품을 첫 양산한 이후 9년만의 성과다.

지난 5월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10만대를 돌파했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전기차 등 현대·기아차의 모든 친환경차 라인업에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의 친환경차부품 매출은 올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 등 올해 양산 중인 총 16개 차종의 친환경차에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성능을 개선한 하이브리드차량용 모터·전력변환장치(인버터/컨버터)·배터리시스템 등은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62.8%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커넥티비티 등 미래차 비전과 연구개발현황도 지속



현대모비스 친환경차부품 생산기지인 총주공장에서 작업자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가능성보고서에 담았다.

현대모비스는 구체적인 미래차 연구개발 성과로 글로벌 자율주행 테스트차량 ‘엠빌리(M. Billy)’를 국내와 북미·유럽에서 현재 3대에서 올해 말까지 총 10대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차량 외부 360도를 감지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용 레이더 센서 5개를 올해 안에 개발해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양산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주요 이해관계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경제·사회·환경 부문 경영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8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31개 경영이슈 가운데 중요성 평가를 거쳐 ▲미래기술 개발과 경쟁력 확보 ▲고객만족 경영 ▲인권과 조직원문화 등 3가지 핵심주제와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사회공헌·환경경영 등 7가지 일반주제로 구성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 성과와 이익창출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최고 등급인 ‘월드’ 등급을 받았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LG전자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최고상 수상

시그니처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문 열지 않고도 확인 가능해 효율성 ↑

LG전자가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최고상을 받으며 차별화된 에너지 효율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5일 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후원하는 ‘제21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LG 시그니처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가 최고상인 ‘에너지 대상 및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또한 총 10개의 상 가운데 대상 3개를 포함 7개를 휩쓸어 수상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상을 받았다.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에 주어지는 상이다.

상을 받은 LG 시그니처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는 신개념 수납공간인 매직스페이스에 노크온 기능을 추가한 제품이다. 사용자가 매직스페이스도어를 두드리면 냉장고 안 조명이 켜진다.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보관중인 음식물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문을 여닫는 횟수를 최소화해 문 전체를 여



최고상을 받은 LG 시그니처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노크온 매직스페이스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문을 여닫는 횟수를 최소화해 문 전체를 여닫을 때에 비해 냉기 유출을 47% 줄일 수 있다. /LG전자

닫을 때에 비해 냉기 유출을 47% 줄일 수 있다.

이밖에 고효율 백컨택 태양광 모듈이 ‘에너지 대상 및 환경부장관상’, 휘센 벽걸이 에어컨은 ‘에너지 대상’을 받았다.

기존 태양광 모듈은 기상변화에 따라 발전량의 편차가 컸다. 하지만 고효율 백컨택 태양광 모듈은 다양한 기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태양전지 표면 전극을 후면에 위치시키는 후면

전극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모듈 출력을 15% 정도 높였다. 신뢰성 테스트 결과 25년 이상을 사용해도 초기의 87% 수준 출력을 낼 수 있다.

휘센 벽걸이 에어컨은 공기청정 기능을 강화했다. 실내 먼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기 질이 좋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기청정 기능을 작동한다. 또한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소음은 줄였다.

에어컨이 냉방 운전할 때 실내에서 회수한 열을 이용해 온수를 생산하는 시스템 에어컨 멀티 브이 HS는 ‘에너지 효율상’을 받았다. 냉난방 성능을 향상시키고 소비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로 독자 개발한 하부압축스크롤 압축기를 적용한 초절전 상용용 인버터 에어컨은 ‘에너지 기술상’을 수상했다.

고효율 리니어 압축기를 사용해 동급 모델 대비 가장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디오스 상냉장·하냉동 냉장고는 ‘00. 저감상’, 부피가 크거나 양이 많은 재료를 한 번에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화구의 활용성을 높인 디오스 인덕션 전기 레인지는 ‘에너지위너상’을 수상했다. 인덕션 제품이 에너지위너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현대상선, 친환경기준 부합 대형 컨선 취향

1만100TEU급 ‘HMM 프로미스호’

현대상선이 5일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프로미스호’ 취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개최된 취향식에는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을 비롯해 봉현수한진중공업 사장(조선부문), 강부원

부산항만공사 국제물류사업단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에이치엠 프로미스호는 지난해 8월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한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 중 첫 번째 선박이다. 현대상선은 현재 전 세계 운항중인 1만1000TEU급 이상의 메가 컨테이너선 중 유일하게 최대 규모의 스크러버를 에



5일 부산항 신항 4부두(HPNT)에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에이치엠 프로미스호가 첫 취향을 위해 입항을 준비하고 있다.

이치엠 프로미스호에 장착해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 황산화물규제에 대비했다. /양성운 기자

무상점검·수리비 지원·공짜 견인... 침수피해車 구하라

완성차업체 수해지역 특별서비스

현대·기아 차량 정비·생필품 지원
쌍용자동차 수해차량 전담팀 운영
르노삼성·한국지엠 무상점검·견인

전국적으로 장마와 국지성 호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부산과 경남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들이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장마 및 태풍 기간 동안 수해 차량을 위해 긴급출동 및 각종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해지역 특별 서비스'를 실시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르노삼성이 발빠르게 수해 차량 지원에 나선 가운데 현대·기아차·한국지엠도 무상점검과 수리비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엠 웨보레 직원이 수해차량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쌍용차는 오는 10월말까지 장마철 국지성호우나 태풍, 게릴라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 차량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해차량 특별 정비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쌍용차는 우선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에 지역별로 수해차량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전담 작업장을 마련해 수해차량 특별정비를 실시한다. 보험 미적용 수해 차량에 대해서 총 수리비(부품+공임)의 30%를 할인해준다.

특히 재난·재해지역 선포 시 해당지역 관청과 연계해 인근 AS(애프터서비스)

네트워크에 합동서비스팀을 설치하고 긴급출동 및 수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모성 부품도 무상으로 교환해주고 필요하면 비상 시 동 조치도 할 예정이다.

르노삼성도 오는 10월까지 수해 차량 고객에게 수리비 지원과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수해 차량 특별 지원 캠페인은 전국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및 협력 서비스 센터에서 이뤄진다. 보험수리를 하는 고객에게는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며, 유상수리(비보험) 고객에게는 부품과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를 30% 할인(최대 500만원 한도)해 준다.

또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르노삼성의 '내차사랑 수리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복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도 매년 '수해 특별점검서

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수해 차량 무상점검 및 '피해 차량 정비 지원'은 물론 이차민 피해 복구를 위한 무료 세탁 서비스, 생필품 지원 등 '긴급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 바 있다.

현장 조치가 어려운 차량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현대), 오토큐(기아)로 입고해 수리하고, 현대모비스와 함께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줌으로써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지엠도 수해 피해 차량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구입 특별 혜택과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시동을 걸면 엔진과 변속기, 전기장치 등 차량 주요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근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정비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V30·G7 강점 더한 'LG V35 씽큐' 출시

초경량·초고성능에 AI 카메라까지
이통사 자급제 출고가 104만8300원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35 씽큐(ThinQ)를 이통통신 3사와 자급제 채널을 통해 6일 출시했다. /LG전자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35 씽큐(ThinQ)'를 이통통신 3사와 자급제 채널을 통해 6일 출시했다.

LG V35 씽큐는 얇고 가벼운 LG V30의 디자인에 LG G7 씽큐의 강력한 성능을 담은 제품이다. 6인치 18대9 화면비의 올레드 풀비전 디스플레이에 6GB램, 64GB의 내장메모리가 적용됐으며 출고가는 104만8300원이다.

LG V35 씽큐는 ▲스스로 사물을 인식해 최적의 화질을 추천해 주는 'AI 카메라' ▲최대 7.1채널의 사운드를 전달하는 'DTS:X 3D 입체음향' ▲뛰어난 명암비와 빠른 응답속도로 생생한 고화질을 즐

스' ▲피사체를 돋보이게 촬영할 수 있는 전후면 아웃포커스 카메라 ▲3초마다 1장씩 최대 20장까지 연속 촬영해 GIF 파일로 만드는 '플래시 점프 컷' ▲타이머 촬영 시, 촬영 타이밍을 플래시로 알려주는 '타이머 플래시' 등의 기능을 담았다.

LG전자는 LG V35 씽큐 출시에 맞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LG V35 씽큐를 구매한 고객은 액세서리 패키지(BTS 팩, 프리미엄 팩) 중 한 가지를 '기프트팩' 앱에서 LG 페이로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 건강 관리 가전 5종(LG퓨리케어 정수기,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LG 트롬 스타일러, LG 힐링미 안마의자, LG 트롬 건조기)의 렌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이용권도 받게 된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최종철 현대해양서비스 대표(왼쪽 첫번째)와 안광현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현대글로벌서비스와 현대상선의 배기가스세정장치 개조공사 기술협력 협약(MOU)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글로벌서비스 '친환경선박 개조사업' 결실

상반기 수주액 1억달러 돌파 '두각'

선박 유지·보수·수리업체인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조선업계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친환경선박 개조 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조선업계 블루오션으로 평가되는 친환경 선박 개조 서비스 분야에서 수주액 1억달러를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친환경 선박개조는 배기가스세정장치,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등을 장착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이 분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수주한 1600만 달러의 7배가 넘는 1억2000만달러를 수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기가스 세정장치 18척,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29척 등 총 47척에 대한 친환경 설비 개조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특히 국내 업체 중 최초로 배기가스 세정장치 장착을 제품 공급에서부터 설치, 시운전까지 일괄 공급 방식으로 수행할 예정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기아차 더 K9 주행모습.

기아차 K9 고객 초청 클래식 음악 감상회

기아자동차와 렉시콘이 더 K9의 뛰어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승과 음악감상회를 개최한다.

음악감상회 '살롱 드 K9 클래식 인비테이션'은 기아차와 렉시콘이 플래그십 세단 더 K9에 걸맞은 품격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오는 19일 서울 강남구 '살롱 드 K9'에서 진행되며 올해 11월까지 매월 1회씩, 총 5회 실시될 예정이다.

'살롱 드 K9 클래식 인비테이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는 12일까지 '살롱 드 K9' 문의전화를 통해 응모 가능하다. 기아차는 이벤트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쌍의 커플을 행사에 초청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시네마 클래식 음악 감상회는 음악 칼럼니스트 정준호씨가 진행을 맡으며 ▲유성영화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 ▲뮤지컬 걸작 영화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화속 명장면과 함께 듣는 클래식 음악 등 영화음악 관련 콘텐츠, 그리고 유명 공연 영상을 함께 감상하고 해설을 곁들이는 공연음악 관련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시네마 클래식 음악 감상회는 렉시콘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으로 진행돼 고객들은 보다 현장감 있는 높은 수준의 음향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대1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객이 직접 더 K9을 체험해볼 수 있는 시승 기회도 제공한다. /구서운 기자

LG CNS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IoT 결합형 '시티허브'

LG CNS가 업계 최초로 'IoT 결합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티허브(가칭)'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티허브는 교통·안전·에너지·환경 등 도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관제하는 스마트시티의 심장 격인 통합플랫폼으로 빌딩·가로등·자동차 등 도시 인프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해 교통·안전·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한다.

시티허브는 국제 IoT 표준인 oneM2M 뿐만 아니라 물류·제조·유통 등 산업영역 별 98종의 통신 표준을 지원한다. 이러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산업별로 다른 통신을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플랫폼 구축없이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한 LG CNS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빅데이터 플랫폼 '디에이피(DAP)' 등 신기술을 적용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는 고차원적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다. /구서운 기자

립스틱 뚜껑 열면 경보음+112 신고접수

SKT 여성 호신용품 '마이 히어로'

SK텔레콤은 ▲경보음 발생 ▲112 문자 신고 ▲지인 호출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휴대용 여성 호신용품 '마이 히어로(My Hero)'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격은 2만5000원으로 SK텔레콤 공식 대리점, T월드다이렉트를 비롯해 11번가 등 온라인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기존 호신용품은 부피가 크고 모양이 투박해 여성 고객들은 호신용품을 주로 가방 안에 넣고 다녔다. '마이 히어로'는 지름 0.8cm, 높이 8cm로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다. 립스틱 모양의 디자인으로 평소 목걸이로 착용하거나 가방에 달 수 있게 제작됐다.

'마이 히어로' 이용자는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에 노출 시 립스틱 뚜껑을 열듯 '마이 히어로' 외부 케이스를 한 번만 뽑으면 된다. 외부 케이스를 뽑으면 약 90d



b 수준의 경보음이 울리고 112에 문자 신고가 접수된다. 또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지인에게 긴급 메시지와 위치 정보가 함께 전달된다.

'마이 히어로'는 사물인터넷(IoT) 제품으로 스마트폰에 'SKT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 후 기기를 등록해야 '마이 히어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대구銀, 행장 공백 길어질 듯... 회장·행장 겸임론도

이사회, 부행장 대행체제 유지 합의 전·현직 인사들 하마평에도 신중 행장공모 내부·외부 정해진 것 없어

김경룡 행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로 수장 공백기를 맞은 대구은행이 당분간 은행장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임 행장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5월 DGB금융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행장 공모를 진행해 김경룡 지주 부사장을 내정했으나 지난 2일 김 내정자가 지역 여론과 은행 안팎의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를 발표하면서 은행장의 공백기를 맞게 됐다.

이에 지난 4일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이사회는 그룹임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은행장 경영권 승계 절차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이사회는 박명흠 부행장(마케팅 본부장)의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업계에선 은행장 공백기간이 길어질



대구은행이 당분간 은행장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임 행장을 모색하면서 대구은행장의 공석이 길어질 전망이다. /대구은행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사회가 대행 체제 유지 외에 차기 행장 인선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다. 일부에선 다시 회장 겸행장 체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후임 대구은행장 임명을 두고 여러 전·현직 인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구은행은 신중한 입장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은행장의 후

보로 여러가지 인물들이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임추위 일정도 아직 잡히진 않은 상태에서 대행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도 예측할 수 없다. 은행장 공모도 내부인지, 외부인지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구은행은 그룹임원인사위원회에서 신규 임원 선임과 이사회 사무국 설

치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DGB금융그룹은 계열사 전 임원 17명 중 6명만 남기고 8명을 신규 선임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조직개편에서도 ▲미래전략본부 ▲디지털·글로벌 본부 ▲시너지 추진본부 ▲지속가능경영본부 ▲리스크관리본부 등 5개 본부로 재편했다. 특히 기업유리센터와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들이 참여하는 인재육성위원회 신설했다.

아울러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주 미래전략본부 ▲디지털·글로벌본부 ▲준법감시인 ▲DGB경영연구소 등의 임원은 공모를 통해 외부에서 영입된다. 비은행 자회사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이르면 시일 내에 새로운 공모 방식을 통해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사단행은 김태오 DGB금융 회장의 인적쇄신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4일 "고객과 지역사회, 금융당국 기대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인적 쇄신을 바탕으로 그룹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부흥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사 단행은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사활을 걸었던 DGB 금융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유리센터 개설은 김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당초 DGB금융그룹은 금융감독원에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출했지만 1월 금감원으로부터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후 심사는 중단됐다. 그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DGB금융그룹은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앞두고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보전 사건 등 금융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당국의 행정조치 등 변수가 남아있어 인수작업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NH농협리츠운용, 새로운 수익원 될 것”

NH농협금융지주 출범식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5일 서울 여의도 NH농협리츠운용 본사에서 김광수 회장을 비롯한 금융지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NH농협리츠운용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농협리츠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자산관리회사(REITs AMC)로 농협금융의 100% 자회사이다.

이날 출범하는 농협리츠운용은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을 아우르는 범농협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초우량 부동산 투자운용사를 목표로 한다.

농협리츠운용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본인가를 받았으며, 농협금융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우수한 부동산 투자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



5일 서울 여의도 NH농협리츠운용 본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왼쪽)과 NH농협리츠운용 서철수 대표가 출범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 고객의 자산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을 출시하고, 농협금융의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대표는 "계열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안정적 수익기반을 다져 회사가 조기에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은행-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3년 총 300억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업무협약을 고용노동부와 체결하고,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2017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권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협약에서 우리은행은 지원규모를 총 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향후 5년간 여신, 모태펀드 출자, 제품구매 및 현물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은 안재용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공동대표의 축사로 이어졌으며, 사회적기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손태승 우리은행장.

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손태승 우리은행장의 화답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는 8월 고용노동부 모태펀드에 15억원을 간접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 큰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저금리인듯 저금리 아닌 ‘서민금융상품’

정부보증에도 금리 시중 두배

저축銀 “수익 역마진” 억울

정부가 특례보증을 통해 서민금융상품 부실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데도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보증이 90% 이상인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부실이 나더라도 저축은행 피해가 적지만 저신용자에 대한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금리에 더해 부과하고 있다는 것.

서민금융상품으로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등이 있다. 그 중 정부가 특례보증을 제공한 상품은 햇살론과 바퀴드림론으로 햇살론은 정부보증비율이 90%, 바퀴드림론의 경우 정부보증비율이 100% 달한다. 햇살론의 경우 상호금융회사나 상호저축은행이, 바퀴드림론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보증대출 중 절반이상은 햇살론으로

〈햇살론 대출실적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구분	17년					16년 1~4월	전년동기대비 증감	
	1월	2월	3월	4월	계		금액	비율
근로자	2,398	2,585	2,710	2,593	10,286	5,782	4,504	77.9%
사업자	257	266	349	309	1,181	1,205	24	2.0%
합계	2,655	2,851	3,059	2,902	11,467	6,987	4,480	64.1%

금리는 연 4~6%인 가계담보대출의 두 배인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월 햇살론 대출실적은 1조1457억 원으로 2016년 대비 64% 증가했다. 지속적인 대출실적상승과 안정적 운용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시중 보증상품의 두 배라는 분석이다.

햇살론의 정부 보증비율은 90%이다. 예컨대 저신용자가 1000만원 대출금중 500만원을 연체해 부실로 판명날 경우 정부보증비율이 90%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손실은 50만원 안팎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평균 조달금리 2%와 예금보험료 0.5%, 운영 인건비 1%, 모

집법인 수수료 3~5%를 떼고 나면 수익이 1~2%이거나 역마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상품은 타 상품에 비해 금리가 저렴한 편이다"며 "햇살론은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중소서민금융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경우 서민금융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일정한 운용비용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며 "7~9%의 햇살론 금리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공공성원리에 입각한 낮은 금리 서민금융기관을 마련하는 방법,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여신금융협회, 리스영업 실무교육 실시

여신금융협회는 리스 영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중급) 리스 영업 실무교육을 오는 11일과 12일에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분야별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물건별 리스 시장 현황 및 영업방식, 업무프로세스 등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함께 영업 실무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의료기기, 설비 O/O리스 등 일반리스 영업과 관련해 국내 물건별 시장현황 및 시장참여 동향, 관계 법령 및 현안 사항, 여신상품 및 거래구조, 거래처 발굴 및 접근방법과 사고사례 등에 대해 교육한다.

12일에는 자동차 리스 영업과 국내외



자동차 시장 규제 및 업계환경, 현안사항, 자동차 리스 계약 및 업무 방법, 일반 리스, 메인テナンス리스, 장기렌탈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은 리스 영업 업무 3년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차별 부분 수강도 가능하다. 교육신청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6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사유리 기자

금감원

금융 가이드북 ‘태국어’ 발간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 태국어 편을 발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중국어·베트남어 편, 2016년 7월 필리핀어·캄보디아어 편, 2017년 8월 인도네시아어·영어 편을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에 태국어 편을 추가로 발간했다.

가이드 북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5개 금융 주제와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등 총 6개 주제로 구성됐다. ▲은행 이용하기 ▲환전과 해외 송금하기 ▲편리한 금융생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저축과 보험 ▲금융사기 예방 등이다.


/안상미 기자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이룰 수 없을 것만 같던 꿈을
함께의 힘으로 이뤄낸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상대를
하나된 힘으로 이겨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더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인도서 이재용 만나는 文 대통령 “안 만날 이유 없다”

(삼성전자 부회장)

文 대통령, 8일 인도·싱가포르 순방길

전략적 관계 발전시킬 계기 될 것
삼성 노이다 공장 준공식 등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신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다.

첫 번째 방문국인 인도는 오는 12월로 우리나라와 수교 45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인도 순방 기간인 9일엔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표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방문은 정상들 간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인도·싱가포르가 지닌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구조를 최대한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8일부터 10일까지 머물게 될 인도에선 모디 총리와와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동포간담회, 간디추모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8일부터 13일까지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다.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일 오후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봄씨어터를 찾아 인도 유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공원 헌화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13억1000만명 정도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인도는 이를 바탕으로 한 내수시장 규모가 세계 3위권이다.

2015년엔 경제성장률이 16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앞질렀고, 2016년 이후에도 성장률이 중국을 계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인도 국빈방문은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지정학적·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교두보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4년 취임한 모디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인공과 함께 중국에 이은 ‘세계 제2의 공장’을 지향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모디 정부는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

태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항공, 화학, 건설, 전자기기와 같은 25개 중점 유치 분야를 지정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상한도 완화하는 등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키로 한 가운데 취임 후 삼성그룹과 관련한 일정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공장은 삼성전자가 6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만드는 인도 최대의 휴대폰 공장”이라며 “지금 인도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이지만, 중국계 기업들과 시장점유율 1%를 두고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공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크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대통령 순방 일정과 함께하는 인도 경제사절단엔 이 부회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 대신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명단에 올라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일정은 개별 기업의 일정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최고 위급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이 삼성그룹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관찮은가”라는 질문에는 “왜 오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전문경영인이 다 오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중국 순방 때에는 현대차 충칭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도 뉴델리를 출발, 싱가포르로 이동해서는 리센룽 총리와 회담 및 양국 기관 양해각서(MOU) 서명식 참석,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등에 참석한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 정상을 위해 배양한 난초에 외국 정상의 이름을 붙이는 ‘난초 명명식’에도 참석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난초 명명식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사회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미래지향적 협력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강연도 할 계획이다.

김현철 보좌관은 “싱가포르 국빈방문은 첨단산업 선진국인 싱가포르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위해서”라며 “또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발전을 제시하고 모범적인 협력 사례들도 함께 발굴해 나가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건설·IoT·웰빙식품 ‘인도시장 진출’ 유망

인도 경제동향·진출 유망분야 보고 건설·경제·농업 2분기째 7% 성장

신남방 정책 핵심국인 인도 시장 진출 유망 분야로 건설·인프라, 사물인터넷(IoT), 웰빙식품이 꼽혔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서는 양허 수준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인도 경제동향 및 진출 유망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건설·제조·농업 부문의 선전으로 최근 2분기 연속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인도 경제가 투자와 민간소비 증가에 힘

입어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인도 진출 유망 분야로 정부와 민간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업을 꼽았다. 인도 정부는 올해 도로 건설 예산을 7054억 루피(약 1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9% 증액했고 철도에는 12.9% 늘어난 1조4800억 루피(약 216억 달러)를 배정했다. 인프라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 확대, 최소 투자기준 완화 등 투자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진출 유망 품목으로는 IoT 제품과 웰빙 포장식품을 선정했다. 세계 2위 인터넷 사용자 수와 ‘디지털 인디아’, ‘IoT 발전 생태계 구축’ 등 인도 정부의 4차 산업

혁명 육성정책에 힘입어 인도 IoT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28%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칼로리 소모, 심박 수, 운동량 등을 측정하는 건강 관련 웨어러블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인도 소비자의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웰빙 포장식품 수요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 인도 웰빙 포장식품 시장은 2021년 1조 루피(약 146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 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률은 67.5%로 우리나라의 전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인 70%를 하회하고 인도의 개방 양허수준도 일본보다 낮게 나타났다. /김유진 기자 ujjin6326@

“교황의 따뜻함, 인류에 새로운 희망”

文 대통령, 교황청 갈라거 장관 접견
“남북·북미회담 성공에도 큰 힘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교황 성하께서는 지난 방한 때 세월호 참사로 슬픔을 겪는 한국민에게 아주 따뜻한 위로를 주셨고, 이후에도 평창동계올림픽·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등 중요 계기마다 남북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내주셨고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속해서 격려해주셨다”며 “남북회담과 북미회담 성공에 큰 힘이 되어 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교황청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갈라거 대주교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교황 성하께 특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교황께서 항상 낮은 자세로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인아주시고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 진력하시는 모습은 한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교황청 외교장관인 폴 리처드 갈라거 대주교를 접견하고 있다. /뉴시스

라거 장관께서도 기회마다 우리 정부에 큰 도움을 주셨다”며 “직접 감사드릴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갈라거 장관께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한 것으

로 알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가 진전되면 고통받는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하도록 교황께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인도 경제사절단 명단)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구분	연번	업체명	성명	직위
주관	1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2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3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4	SK루브리컨츠	지동섭	대표이사
	5	LG전자	안승권	사장
	6	롯데그룹 식품BU	이재혁	부회장
	7	포스코	성기웅	법인장
	8	GS칼텍스	김형국	사장
	9	한화디펜스	이성수	사장
	10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11	두산	동현수	부회장
	12	대한항공	이병호	동남아지역본부장
	13	CJ대한통운	박근태	대표이사
	14	CJ제일제당	김진현	부사장
대기업 (14개사)	15	LS전선	명노현	대표이사
	16	계양정밀	정병기	대표이사
	17	디젠	한무경	회장
	18	바인그룹	김영철	회장
	19	법무법인 울촌	정동수	고문
	20	법무법인 화우	박상기	고문
	21	세라젬	이환성	회장
	22	에이치엠디씨	김영수	사장
	23	엘비루셈	최신	수석
	24	킨텍스	임창열	사장
	25	팬코	오경석	사장
	26	한국정보통신	임명수	부사장
	27	한국항공우주산업	김조원	사장

박용만·윤부근 등 경제사절단 발표

대한상의, 대기업 14곳·중견 12곳

대한상공회의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 명단을 5일 발표했다.

명단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지동섭 SK루브리컨츠 대표이사 ▲안승권 LG전자 사장 ▲이재혁 롯데그룹 식품BU 부회장 ▲김형국 GS칼텍스 사장 ▲이성수 한화디펜스 사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김진현 CJ제일제당 부사장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김도

진 IBK기업은행 은행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위성호 신한은행 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 은행장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박진희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등 총 100여개사가 참석한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4개사이고 중견기업 12개사이다. 중소기업 55개사와 기관·단체 23개사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인도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사절단이 만들어졌다. 대한상의는 경제사절단 선정 주관기관으로서 공정한 참가기업 선정을 위해 주요 협회 대표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지난달 29일 개최했다. /인생도 기자 catchr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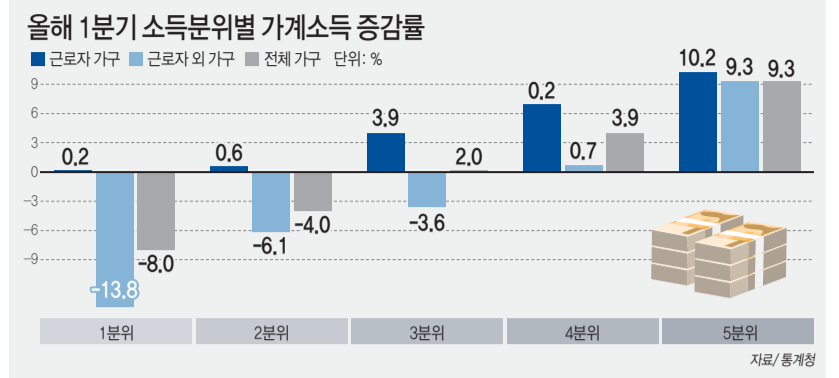
한국은 자영업자의 무덤 209만원 벌며 ‘한달살이’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 더 이상 알바를 써서 수익이 남지 않아 부부가 맞교대로 24시간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자기 사업을 하는 것보다 다른 가게 알바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세상에서 누가(자영업이라도)창업할까 의문이다.”(PC방 사장 A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보다 사정이 좋았다. 곳곳에 커피숍이 들어서면서 경쟁은 치열해졌고,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올라 남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한 없이 오르는 임대료도 걱정이다. 10년 가장 장사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커피숍 사장 B씨)

**자영업자, 전체 근로자 ‘28%’
근로자 평균급여 한참 밑돌아
경기동향도 3개월 연속 하락**

자영업자로도 불리는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사면초가다.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경쟁은 심화돼 하루 하루 먹고 살 걱정만 늘어나는데 인건비와 임대료 걱정에 한숨만 늘고 있는 것이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월급쟁이가 아닌 근로자의가, 즉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8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기업 숫자의 85.6% 수준에 달하고, 고용도 36.2%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위치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은 절대 낙관적이지 않다. 한 달을 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해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1인당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 329만원을 한참 밑돈다. 가구당 부채보유액도 자영업자는 1억87만원으로 월급받는 상용근로자(8062만원)보다 많다. 처분 가능한 소득과 비교한 금융부채 비율도 자영업자는 166.8%로 107.8%인 상용근로자보다 월등하다. 자영업자들은 갖고 있는 현금을 모두 동원하고, 통장을 깨도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단순한 수치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바라보는 현실도 암울



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5월 전국 소상공인 514명을 대상으로 경영 실태를 조사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1년전에 비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매우 어려워졌다'가 38.7%, '다소 어려워졌다'가 50.3%다. '다소 좋아졌다'는 응답은 고작 2.8%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81.4%는 1년전에 비해 매출이 10~30%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5.8%만이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 직면하고 있는 경기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달 한 차례씩 조사해 발표하는 경기동향(BSI)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6월 소

상공인 체감 BSI는 62.2로 전월에 비해 9.4p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 0.8p 떨어졌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이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소상공인 체감 BSI는 2014년 3월 당시 102.9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100을 넘지 못했다. 내수 침체와 소비 심리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임대료 급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제 주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에겐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시름 많은 소상공인, 최저임금에 처기 비정규직

정규직 1.9만원 벌 때 비정규 1.3만원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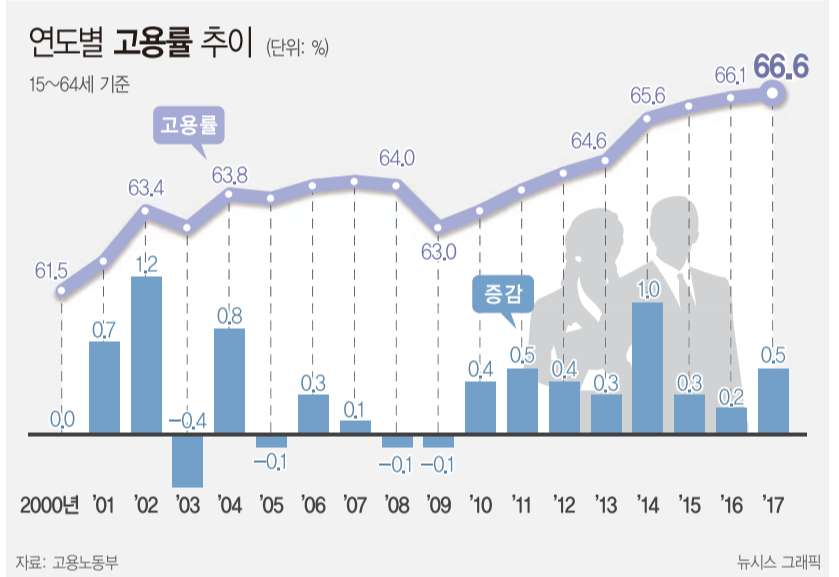
(시간당)

**울산근로자 임금 최고
근로시간은 서울 최단
총생산액 최고 수도권**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2017년 기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을 5일 발간했다. 이는 우리나라 고용노동관련 통계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전국 총괄', '업종별 현황', '대상별 현황', '지역별 현황' 등 크게 4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간 노동시장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OECD 국제비교 통계'도 부록에 수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67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을 중심으로 매년 30만~40만명 대내외로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상대

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장의 작년 월 평균 임금은 351만8000원이었고 노동시간은 167.8시간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컸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835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1만3053원보다 44.3% 많았다. 월 노동시간은 정규직이 183.1시간, 비정규직이 125.1시간이었다. 청년층 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1만2179원이었고 월 노동시간은 159.5시간이었다. 지난해 노사분규는 101건으로, 전년

(120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53건이었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8건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1번째였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7.1%로, OECD 29개국 중 7번째였고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70.2%)은 19번째였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도 OECD 순위에서 뒤쳐졌다. 한국의 2016년 노동소득분배율은 63.3%로, OECD 28개국 중 21번째였다. 한편, 전국에서 노동자 평균 월급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로 조사됐다. 작년 4월 기준으로 광역시·도별 월 평균 임금은



울산이 424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94만2000원), 충남(359만5000원), 전남(355만원) 순이었으며 월 평균 임금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264만9000원)였다. 월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166.3시간)이었고 대전(168.7시간), 강원(172.2시간), 광주(172.2시간)가 뒤를 이었다. 월 노동시간이 가장 긴 곳은 경북(182.1시간)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지역별 총생산액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국의 49.4%를 차지했다. 반면, 광주, 대전, 강원, 전북은 각각 2%대의 낮은 수준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화학 제조업, 자동차산업 등이 밀집된 울산과 금융, 서비스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의 임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박삼구 사과에도 '기내식 대란' 확산 조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확산돼 경영 책임을 묻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압박감을 느낀 기내식 공급 업체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아시아나를 향한 여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영진의 갑질과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집회를 준비 중이다. '기내식 대란'은 아시아나가 기내식 납품 업체를 교체하면서 촉발됐다. 아시아나는 당초 이달 1일부터 새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코메코리아(GGK)로부터 기내식을 받기로 했지만, 올해 3월 신

축 중인 GGK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임시로 3개월간 중소업체인 샤프도앤코 코리아에서 기내식을 공급받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가 샤프도앤코 코리아와 맺은 계약은 30분 이상 공급 지연 시 음식값의 절반만 지급하고, 15분 지연 시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부터 기내식을 제때 받지 못해 출발이 늦어진 장거리 항공편이 잇따라 발생했고, 출발 시기를 맞추려 '노Meal'(No Meal) 상태로 기내식 없이 이륙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2일에는 전체 75편 중 10편이 늦게 출발했다. 기내식이 실리지 않은 '노Meal' 운항은 1일 36편, 2일 28편에 달했다. 3일은 21편이 기내식이 없는 상태로 출발했고 4일에도 24편에 이른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예견된 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4일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내식 대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자사 항공기의 기내식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업체와 계약한 점에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하루 2만5000식~3만의 기내식을 공급해야 하는데 샤프도앤코의 하루 기내식 생산량은 3000식이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수요를 감당하려면 약 500명 규모의 사업장이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샤프도앤코는 직원 수는 63명에 불과하다. /양성문·정연우 기자 ysw@

반도체 호황에 경상수지 흑자 '최대치'

연휴 해외여행으로 여행수지는 '부진'이었지만 5월에는 상품수지 흑자가 크게 나왔다"며 "수출이 아직 견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222억 7000만달러 흑자다. 현재 속도라면 한은의 상반기 전망(280억달러 흑자)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지 흑자는 113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작년 11월(114억6000만달러) 이후 최대였다. 상품수출이 537억8000만달러로 작년 9월 이후 최대인 영향이 컸다. 수입은 423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6월 통관 기준 수출이 약간 마이너스(-0.089%)였지만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5% 빠졌고 선박수출 기저효과도 있었다"며 "그런 요인을 제거하면 수출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반도체 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인 '유커(遊客)'가 돌아왔음에도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며 여행수지는 부진이 계속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5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5월 경상수지는 86억8000만달러 흑자였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2012년 3월 이후 7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흑자 규모는 6년 만에 가장 적었던 전월보다 늘어나며 작년 9월(122억9000만달러) 이후 가장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4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배당지급이 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grovana.co.kr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GMT
1547.1528

“한여름에 겨울 옷, 나 먼저 산다”



유통업계, 역시즌 깜짝 마케팅

매출 비수기인 7~8월, 유통업계가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의 겨울 의류를 저렴하게 선판매하는 ‘역시즌 마케팅’에 나섰다. 역시즌 마케팅은 겨울 시즌에 여름 상품을, 여름 시즌에 겨울 상품을 선보이는 마케팅으로, 한겨울 정상 판매 기간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5일까지 겨울 대표 의류상품인 벤치파카, 롱패딩, 재킷 등을 할인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역시즌 마케팅은 알뜰하게 쇼핑을 하고자 하는 고객들과 다음 시즌의 상품들을 미리저렴하게 만나보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행사가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앞서 2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의 ‘아웃도어’ 매출은 전주 동기 대비(6월21일~25일) 약 15.3% 가량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역시즌 마케팅의 대표적인 행사 내용으로는 ‘2018 F/W 벤치파카’를 정가가 대비 10~4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블랙야크’에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벤치다운자켓’을 정가가 대비 최대 30% 가량 할인 판매하며, 네과, 컬럼비아,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인기 브랜드에서도 18년 F/W 상품들을 정가가 대비 최대 4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TV홈쇼핑 업계에서도 7~8월은 일년 중 가장 대표적인 비수기다. 여름 휴가철



역시즌 마케팅 상품 살펴보는 모습.

/롯데백화점

정상시즌보다 저렴해 판매량 ↑
롯데백화점 패딩 등 겨울상품 판매
CJ ENM 오쇼핑 역시즌 집중 편성

TV 시청이 줄어들어 매출도 감소하고, 여름 옷의 단가가 낮아 취급급과 매출 자체도 감소한다.

CJ ENM 오쇼핑 부문은 비수기 타개책으로 공격적인 역시즌 전략을 들고 나왔다. 오쇼핑 부문은 ‘나 먼저 산다’라는 타이틀로 밍크, 무스탕, 다운 등 대표적인 겨울 옷을 판매하는 역시즌 전문 프로그램을 7~8월에 집중 편성한다. 보통 역시즌이라고 하면 지난해 겨울에 팔다가 남은 재고를 파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쇼

핑 부문은 올해 역시즌 집중 편성을 위해 아예 올 겨울 신상품을 미리 판매하기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고객들이 여름에 겨울 옷을 사는 이유는 가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겨울철에 정상 판매 했을 때 보다 10~20% 가량 더 싸게 살 수 있다. 선기획을 통해 단가가 높은 겨울 의류 소재를 미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고, 제조원가 또한 내려가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다.

오쇼핑 부문은 오는 8월까지 약 13회의 ‘나 먼저 산다’ 방송을 집중 편성해 엠티, V W베라왕, 셀럽샵에디션 등 오쇼핑의 대표적인 ONLYONE 패션 브랜드의 겨울 의류 6종을 판매, 32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co.kr



코카-콜라의 ‘조지아 고티카 빈티지’ 3종

GS25의 ‘광화문’

720시간 숙성 커피... 4주 발효 맥주... 12시간 우려낸 냉면육수

시간의 가치 담아낸 먹거리, ‘밸류 남달라’

식품업계가 바뀐 현대인들에게 시간 가치를 전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타임 푸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정성 들여 만든 먹거리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구매 만족도는 높아지고, 풍미와 식감은 더욱 깊어진 것이 특징이다.

◆720시간 숙성 커피

‘조지아 고티카 빈티지’는 코카-콜라사의 커피 브랜드 조지아의 노하우를 살린 ‘조지아 고티카’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조지아 고티카 빈티지 블랙’, ‘조지아 고티카 빈티지 라떼’, ‘조지아 고티카 빈티지 스위트 아메리카노’ 등 총 3종으로 출시된 이 제품은 패키지에 우든 박스 콘셉트를 적용해 숙성 커피 열매의 그윽한

향이 느껴지는 빈티지한 느낌을 담았다. 이 제품은 720시간(30일) 숙성한 빈티지 커피 열매를 사용해 타 제품과 차별점을 뒀다. 또한 720시간 동안 저장고에서 숙성된 커피 열매를 사용한 만큼 깊고 풍부한 커피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다.

◆17시간 저온 숙성으로 만든 피자

올가홀푸드는 17시간의 저온 숙성을 거친 도우로 만든 프리미엄 가정 간편식 ‘올가 저온숙성 도우라 졸깃한 마르게리타 피자’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친환경 식품업계 최초의 피자 PB 제품으로, 피자의 핵심 요소인 도우를 저온(0~4℃)에서 17시간 동안 숙성시켜 졸깃한 식감과 담백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4주’ 발효로 목직하고 진하게

편의점 GS25는 최근 4주 간의 발효 기

풍미·식감 가득한 정성담긴 제품 간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어 인기 맥주·커피·스테이크 등 메뉴 다양

간을 거친 수제맥주 ‘광화문’을 출시했다. 코리아 크래프트 브루어리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광화문’은 4주 간의 발효를 통해 맥아(Malt)의 깊고 풍부한 맛과 묵직하고 진한 향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엠베일(Amber Ale)로 호박색을 띠는 붉고 진한 색상이 특징이다. 또 자양강장제로 사용되는 한약 약재 성분인 맥문동(麥門冬)을 함유, 감칠맛과 약간의 단맛을 더해 풍미를 살렸으며 제품 겉면 라벨에는 광화문 등을 일러스트로 나타내 서울의 트렌디함과 개성을 표현했다.

◆12시간 우려낸 육수로 만든 간편 냉면

풀무원식품은 30일 간의 자연 숙성과 12시간 이상 우려낸 육수를 담은 간편식 냉면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신제품 생가득 ‘서울식물냉면’은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베이프로 해 만든 전통 평양식 냉면 조리법과 서울식 메밀국수 조리법이 어우러졌다. 30일간 자연숙성한 동치미 국물에 12시간 이상 우려낸 사골육수를 더해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강화했다.

생가득 ‘순메밀 졸깃막국수’는 강원도에서 즐겨먹는 메밀막국수를 재현한 것으로 메밀함량 100%임에도 탄력있는 면발이 특징이다.

◆풍미가 살아있는 스테이크

동원F&B는 6시간 숙성 고기를 사용한 가정간편식 스테이크 신제품을 선보였다. 프리미엄 서양식 요리 간편 브랜드 ‘취진’의 ‘더블 스테이크 오리지널(냉장·

냉동)’은 직화 오븐과 그릴에서 각각 한번씩 구워 겉이 바삭하면서도 불맛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스테이크 제품이다.

청정 호주산 쇠고기와 국내산 돈육을 배합해 두툼하게 빚어낸 뒤, 6시간의 숙성 과정을 거쳤다. ‘더블 스테이크 치즈’는 오리지널 제품 속에 부드러운 크림치즈와 체다치즈가 함께 들어있어 풍미가 좋다. 스테이크 제품에 들어있는 데미글라스 소스는 토마토와 양파를 큼직하게 썰어 넣어 원물감이 살아있으며, 진하고 깊은 맛이 고기와 잘 어우러진다.

◆저온에서 발효한 티벳버섯 발효유

매일유업의 친환경 브랜드 상하목장은 12종의 다양한 유산균이 함유된 케피어를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발효유 ‘케피어12’를 출시했다. 보통 요구르트에는 2~3가지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는데, 상하목장이 출시한 케피어12에는 12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다. 특히 저온에서 12시간 이상 천천히 발효해 유산균뿐 아니라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황각규 “지속성장 위해 핵심인재 육성 필요... 기업문화·고객가치 향상을”

(롯데지주 부회장)

롯데 13개 계열사 사장단 회의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이 계열사 사장단에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5일 롯데에 따르면 황 부회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식품 부문 13개 계열사 사장단 회의(VCM·밸류크리에이션미팅)에서 “쌍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VCM에서 참여사 모두 사별 벤치마킹 및 시너지 창출의 기회를 얻었기를 기대한

다”며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사에서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이슈로 ‘디지털 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객계층 변화’,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 등을 제시하며 이 세가지 변화에 대해서만큼은 무엇보다 대응전략을 빠르게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회장은 이와 함께 “지속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미래역량 확보를 위해

핵심인재 선발과 육성, 후계자 양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환경과 광범위한 경영정보 속에서 핵심인재 보유는 신속하고 타당한 정보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도록 기업문화가 지속해서 변화해야 한다”며 “고객가치와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사, 임직원과 함께 가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수립된 전략에 대한 강한 실행

을 당부했다. 그는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기업의 생존과 성과는 과감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의 구속수감으로 ‘총수 부제’ 상황인 롯데는 황 부회장과 4개 사업부문(BU)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롯데는 그동안 사장단 회의를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신 회장의 주도 아래 그룹 최고 경영진이 모두 모여 개최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

/롯데지주

했지만, 올 하반기부터 식품, 유통, 화학, 호텔·서비스, 금융 등 5개 사업분야 별로 나눠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의료봉사도 하고 꽃길도 가꾸고...

대학생 재능나눔에 장성군 '들썩'

대학생·학회 회원·병원의료진 참가 의료·집수리·식생활 교육 등 진행



대학생들 장성군 농촌 재능나눔 봉사활동 여름캠프

대학생과 학회 회원, 병원 의료진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재능나눔 캠프 덕분에 장성군이 들썩이고 있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하는 '2018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여름캠프'가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장성군 황룡면, 장성읍, 동화면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들만 참여한 전년도 캠프와 달리 올해 캠프에는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사회봉사단체와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원 등 총 200여명이 4개분야 1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재능나눔 활동을 전개한다.

이들은 단체와 학교별로 나누어 의료 봉사, 집수리, 벽화그리기, 소방·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리마인드 웨딩과 장수·가족사진 촬영, 마사지, 이·미용, 건강·식생활 교육도 진행한다. 또 독거 노인 집을 찾아 청소작업을 벌이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일손 돕기, 꽃길 가꾸기 작업도 펼친다.

장성군은 이들의 재능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봉사 대상자 선정부터 장소 섭외 등에 적극 협조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격려하기

도 했다.

지역 사회단체들의 환대와 응원도 이어지고 있다. 장성읍 여성회, 장성읍 청년회, 장성군청소년수련관 등을 비롯한 장성청년재능나눔협의회 회원들과 황룡농협, 한농연장성군연합회, 현대푸드 관계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 샌드위치와 감자, 삼겹살 등의 먹거리를 전달하며 장성의 따뜻한 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장성군은 이번 캠프에 참여자 대부분이 장성을 처음 방문할 것으로 보고 캠프 마지막날인 6일 이들을 위한 특별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이날 문화해설사와 함께 장성의 대표 관광지인 필암서원과 장성호 수변길, 축령산, 흥길동 테마파크 등을 돌며 장성의 숨은 매력을 알아갈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한꺼번에 장성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학생들 덕분에 마을 곳곳이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면서 이번 캠프가 도농간·세대간 교류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성군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모든 참가자가 즐거운 추억을 쌓고 건강하게 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캠프에는 대구한의대, 동신대, 서울여자간호대, 경운대, 약림학회, UD치과, 원광대, 단국대, 강릉원주대, 서원대, 경동대, 순천제일대, 동명대, 충북대, 대한국농촌건축학회, 다솜동지재단, 서경대, 여주대, 인터플랜, 농수산대, 송실대가 참여했다.

/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서남해안 리아스식 해안·섬·갯벌

천혜의 자원으로 '명품 셋길' 만든다

전남도가 리아스식 해안, 섬, 갯벌 등 서남해안 고유 자원을 활용한 '명품 셋길' 조성을 추진한다.

국도 2호선 단절 구간 연결 등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만 1조원에 육박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기본구상'에 의한 실행계획 공모에서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전남도는 용역비 3억원 가운데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전남도와 목포·무안·신안 등 3개 시·군이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경관 셋길을 중심으로 해안 일주도로, 자전거·도보 탐방로, 항포구 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 경관 도로(America's Scenic Byway), 스위스 모빌리티, 아일랜드 '타이디 타운', 일본 '오노미치 U2' 등을 모델로 서남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9593억원에 달하는 예상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92.1%에 달하는 8834억원은 국도 2호선 단절 구간인 안좌~비금도(4.8km), 하의~도초도(3.2km), 자라~장산도(1.45km)을 연결하는 비용이어서 경관 개발보다는 SOC 사업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프로젝트 구상이 용역으로 첫발을 떼게 된 만큼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목포, 나주, 무안의 '호남선 남해열차 사업'도 선정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광주, 나주, 목포 간 테마 열차를 운행해 나주 로컬푸드 팩토리 등 역사 인근마다 특색있는 시설을 조성해 마을 재생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예상 사업비는 119억원이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



박정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이 보성군 소재 신화테크에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중앙-지방 손잡는다

행정안전부, '청년드림' 적극 지원 지자체 사업 확정 후 광주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광주 청년드림을 방문해 정책방향은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광주형 청년 일자리 시책인 '청년드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남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청년드림 일 경험 현장을 방문해 청년참여자들과 사업장 대표, 운영기관 매니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광주청년드림'은 지역 미취업 청년들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역량을 쌓아 민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에게는 월급 120만원을 4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나해부터 광주시가 추진해오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선도사례로 제시돼 올해 하반기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대됐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 500명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41억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자체 사업 확정 후 처음으로 광주 청년드림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 청년들은 "청년드림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기대된다"며 "참여 기간과 회수를 연장해서 취업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교육사회적기업 포인트의 양승주 대표는 "사회적기업의 임금여건이 높지 않

다 보니 청년드림 일 경험 종료 후 채용 의사를 밝혀도 청년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해소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전국 확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봉채영 기자

광주지방조달청장, 우수 중소기업 현장 방문

박정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지난 4일 보성군에 소재한 신화테크(대표이사 김지영)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활동을 벌였다.

신화테크는 스틸그레이팅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17년 공공 조달시장에서 22억원의 납품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지속적

인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조달업무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다.

박정환 청장은 임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일선에서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이 지역경제의 희망"이라고 격려하고,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공공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한 기업의 모범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

세일 속 세일 '썸머 박싱 위크' 진행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세일 속 또 다른 득템 찬스를 얻을 수 있는 '썸머 박싱 위크'를 5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박싱위크' 기간에 1년에 단 한번 혹은 두번만 진행되는 초특가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우선 9층 접점사상에서는 오는 10일까지 '1년에 단 한번! 와코루 란제리 대전'이 열린다.

1층 행사장에서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1년에 단 두번만 진행되는 '과슬 시계 초특가전' 진행된다. 상품별로 30%~5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여름에 만나는 '국제모피 페스티



발'이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최상주 영업지원 팀장은 "세일 속 세일라는 테마로 1년 중 가장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특별히 마련했다"라며 "실속 있는 쇼핑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 'CEO' 공개 채용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가대표이사(CEO)를 공모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의 기술창업과 기술사업화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역량 있는 CEO를 공개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5일부터 8월3일까

지다.

응모자격은 정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기술·경영 및 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경제·산업분야 전문가다.

대학·연구소에서 부교수 이상, 대기업 이사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급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 임기는 3년, 보수는 연 9000만원 내외다.

8월13일부터 24일까지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등을 통해 9월3일 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는 전남지역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을 산업화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소파 리폼 외길 30년 리폼 장인의 손길을 만나보세요

낡은 소파 · 의자를 처음 모습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소파·의자 / 리폼·천갈이



- 가정용 소파, 의자 천갈이(천, 레자, 가죽)
- 국내외 명품소파 전문수리
- 쿠션관계 등 모든 수리, 부분천갈이
- HOTEL, RESORT, 병원 Maintenance(보수 유지 관리)
- 기업체 관공서 의자류 리모델링
- 국내외 명품 패브릭, 가죽 다양하게 보유
- 가죽소파, 의자 염색재생

www.seoulsofa.co.kr

서울쇼파
seoulsofa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491

전화 한통으로 서울쇼파 장인의 손길을 만나보세요
(전국 어느곳이나 가능합니다)

콜센터
(무료전화)

080-717-7744

- 서울강남지사: 080-717-7744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서, 양천, 동작, 영등포, 여의도, 관악, 금천, 구로)
- 서울강북지사: 02-822-7798 (종로, 중구, 용산, 성북, 서대문, 은평, 마포, 동대문, 성동, 중랑, 광진, 노원, 강북)
- 경기북부지사: 010-3335-1765 (일산, 덕양, 파주, 교하,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포천, 양평, 가평, 홍천, 춘천)
- 경인지사: 032-875-4875 (인천, 연수, 송도, 청라, 서구, 영종, 부평, 계양, 부천시전역)
- 경기 남서부: 010-7744-6658 (김포, 강화, 광명, 시흥, 안산, 안양, 평촌)
- 경기 남동부: 080-769-7288 (용인, 수지, 수원, 성남, 분당, 광주, 광교, 동탄, 화성, 오산, 군포, 의왕, 과천, 하남, 이천, 평택, 천안)

JW중외제약 자회사 C&C신약연구소

싱가포르와 손잡고 혁신신약 개발

과학기술청과 공동연구 계약 체결
피부질환·면역 치료제, 항암제 등
“新 글로벌 협력모델 제시 의미있어”

한-일 합작 바이오벤처 C&C신약연구소가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싱가포르 핵심 연구기관과 손을 잡는다.

JW중외제약과 일본 주가이제약의 자회사인 C&C신약연구소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과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싱가포르 A*STAR와 양해각서(MOU) 수준의 업무제휴를 한 적은 있었지만 기초 연구 분야에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혁신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C&C신약연구소와 A*STAR 산하 싱가포르 피부연구소(SRIS), 계놈연구소(GIS), 면역 네트워크(SIGn), 메디컬 바이오로지 연구소(IMB) 등 4개 연구기관과 국립피부센터(NISC)가 협력해 진행한다.

연구 분야는 다양한 피부질환 신약을 포함하는 면역질환치료제와 암 줄기세포 타겟 치료제를 포함하는 항암제로, C&C신약연구소가 탐색연구 중인 신규 작용기전을 갖는 혁신신약 후보물질을 이용한다.

C&C신약연구소는 A*STAR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연구시설과 동물 모델, 중개임상연구 분야의 다양한



JW중외제약과 일본 주가이제약의 자회사인 C&C신약연구소가 지난 3일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에 위치한 계놈연구소에서 싱가포르 국책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청 A*STAR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벤자민 시트 A*STAR 상임이사, 탄 수왓 훈 국립피부센터장, 안영집 주싱가포르 한국대사, 아마자키 타츠미 C&C신약연구소 공동대표, 전재광 C&C신약연구소 공동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반 기술을 통해 바이오마커, 약물작용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등 상업화를 위한 임상물질을 공동 연구기간 내에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STAR 상임이사인 벤자민 시트 박사는 “사회적으로 면역질환과 항암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C&C신약연구소와 같은 아시아 최고 연구센터 간의 협력이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C&C신약연구소는 앞으로 A*STAR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다각화하는 등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면역질환과 항암제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벤처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C&C신약연구소 아마자키 타츠미·전재광 공동대표는 “글로벌 혁신신약 연구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사들이거나 경쟁사와 합병하는 일이 흔히 발생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초 과학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계약은 한국 바이오벤처 기업이 해외 정부의 핵심 연구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글로벌 협력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C신약연구소는 지난 1992년 JW중외제약과 로슈그룹 산하 주가이제약이 50대 50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국내 최초 합작 바이오벤처 법인이다. 지난 2010년부터 자체 신약 탐색연구를 추진한 이후 총 8종의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화학생물정보 유전체 DB를 중심으로 하는 테크놀로지 플랫폼(C LOVER)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환자 맞춤형 정밀 의학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coul.co.kr

현대렌탈케어, 대형가전 렌탈 진출

삼성전자·캐리어 손잡고
‘의류 건조기’ 2종 출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홈케어 기업 현대렌탈케어가 의류건조기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대형 생활가전 렌탈시장에 뛰어든다.

현대렌탈케어는 ‘삼성 의류 건조기(모델명: DS-30SW·사진)’와 ‘캐리어 의류 건조기(모델명: DC-30S)’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형 생활가전 렌탈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렌탈케어는 이제까지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등 소형 생활가전 제품 20여종을 판매해 왔다.

의류건조기는 국내에서 공기청정기와 더불어 미세먼지 여파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군 중 하나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국내 의류건조기 시장은 2014년 5만대 수준에서 지난해 60만대로 늘어났고 올해는 100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렌탈케어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성능과 브랜드 인지도를 자랑하는 삼성전자와 캐리어의 최신 제품 판매를 통해 국내 의류 건조기 렌탈 시장에 빠르게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판매에 들어 가는 의류건조기 2종은 히트펌프 방식을 채택했다. 히트

펌프 방식이란 세탁물에 직접 고열을 불어넣지 않고 저온의 열로 습기를 제거해 옷을 말리는 방식을 말하는데, 고온의 열풍을 사용하지 않아 옷감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제품별 렌탈료는 삼성 의류건조기가 2만 7900원(화이트 색상), 캐리어 의류건조기가 2만 4900원(실버 색상)이다.

현대렌탈케어는 이번 의류건조기 출시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대형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다양한 생활가전 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박성수 현대렌탈케어 영업전략실장은 “의류건조기 판매를 시작으로 다양한 생활가전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하반기 주부가전과 가구 렌탈사업 전개를 통해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피자알블로_중국 상해 2호점 오픈.

/피자알블로

피자알블로 中 상해 2호점 오픈... 방문객 북적

수제피자 전문 브랜드 피자알블로가 중국 상해에 2호 매장인 ‘피자알블로 진 사장루점’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피자알블로 상해 2호점 진 사장루점은 약 36평 규모로 상해 내 체인 쇼핑몰인 화연상가 1층에 위치해 있다. 화연 상가는 상해 내 5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체인 쇼핑몰로 피자알블로는 상해 내 피자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입점하게 됐다.

화연상가 쇼핑몰 인근에는 화동사범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쇼핑몰 방문 고객 및 인근 학생들까지 유입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피자알블로는 이번 상해 2호점 오픈을 맞아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식 행사,

회원 카드 할인 등의 행사를 진행해 고객 방문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한 1호점의 꾸준한 매출과 현지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2호점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자알블로 관계자는 “국내가 배달 위주의 영업이 많은 것과 달리 중국은 매장 방문 고객이 많은 편이다. 상해 2호점의 경우 쇼핑몰 고객, 인근 학생들의 유입으로 실제 방문 고객이 50%에 육박하는 등 점심, 저녁 시간대 만석을 기록 중”이라며 “성공적인 매장 운영을 바탕으로 피자알블로만의 맛과 가치를 중국에서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반려동물 피부진균증 치료제 출시... ‘펫팜족 주목’

대한뉴팜 DH폴비신 과립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 저변화대로 백신·의약품 등 펫 케어 제품이 관심을 얻고 있다. 5일 코스닥 상장사 대한뉴팜은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주요 피부병 중 하나인 Tinea, Trichophyto 및 Microsporum 등 진균에 의한 피부진균증 예방 및 치료제인 ‘DH 폴비신 과립’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에게 흔히 나타나는 피부진균증은 ‘버짐’ 또는 ‘뿔핍’으로 알려져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보호자 및 동거 동물에게도 쉽게 전

염되는 인수공통질환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경우 효과, 부작용,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인체용의약품을 혼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DH 폴비신 과립’의 주요 성분은 반려동물에 최적화된 그리세오폴빈(항균제)으로 피부진균증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안전성 또한 검증 받았다. 서울대학교 수의대학에서 진행된 ‘DH폴비신 임상시험·독성시험’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피부진균증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제품임이 확인된다. 또한 지난 2월 동

물용의약품으로는 유일하게 그리세오폴빈제로 허가를 취득해 펫팜족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라는 사회적 트렌드 속에 반려동물을 가족 삼아 키우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겨냥한 ‘펫코노미’ (펫과 이코노미의 합성어) 시장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농림식품축산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는 천만을 넘어섰으며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8000억원, 2018년 3조원, 2020년 약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네네치킨 깨끗한 가맹점 위해 정비 실시

대대적인 청소·위생점검 완료

네네치킨이 깨끗한 가맹점 만들기예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네네치킨은 구암·봉명점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에 네네치킨은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정 권고를 받은 해당 가맹점에 지난 4일 오전 클린바이저를 급파해

전체적인 청소 및 위생점검을 완료했다.

네네치킨은 해인식품 음성공장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 전체적인 식자재 안전점검 실시 단계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안타까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적인 관리 단계에서 일선 실무자가 실수를 범한 것은 본사의 실수로 인정하고, 위생관리 매뉴얼 재정립, 대대적 정비와 재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네네치킨은 지난 2012년부터 소규모 매장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 점



네네치킨이 식약처의 특별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구암·봉명점에 클린바이저를 급파했다. /네네치킨

검 및 작업을 실행하는 서비스팀 ‘클린바이저’를 운영, 매주 3회씩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정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네네치킨은 깨끗한 가맹점을 만들기 위해 클린바이저, 사내 소식지 등을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청호나이스 “에어커튼, 전자랜드서 만나세요”

청호나이스는 자사가 최근 선보인 에어커튼이 전자랜드에 입점했다고 5일 밝혔다.

‘에어커튼’ (사진)은 직선토출 기류의 바람을 이용해 외부 공기 유입은 막고 실내 공기가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은 차단해 열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 때문에 최근엔 쇼핑센터, 음식점, 카페, 편의점, 은행 등 고객 출입이 빈번한 업소나 학교 조리실,



음식 뱀새에 민감한 가정 등에서 설치가 늘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4월 에어커튼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으로 500대 이상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에어커튼 제품 가격은 29만 7000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셀프네일로 작은 행복을”... ‘소확행’이 바꾼 홈케어

H&B 매장 관련매출 급증

랄라블라, 전년동기비 128% 신장률
미코노미 등 트렌드... 홈케어 주목
네일 스티커·인조 손톱 등 인기급증

셀프 네일용품이 ‘소확행’을 추구하는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H&B 매장의 네일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올랐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랄라블라(구 왓슨스)의 경우, 128%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는 달라진 소비 트렌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의미하는 ‘미코노미’ 등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가 각광 받는 것이다.

‘홈케어’로 스스로를 가꾸는 데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은 피부, 모발 등을 넘어 손·발톱 관리까지 직접 나서고 있다.



고객이 랄라블라 매장에서 셀프 네일스티커를 살펴보고 있다.

/랄라블라

실제 랄라블라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네일 카테고리의 매출을 살펴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손톱정리용 소도구의 매출은 약 118%, 네일 스티커 및 인조 손톱류의 매출은 134%, 매니큐어의 매출은 11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직접 관리하는 만큼 디자인 만큼이나 편리함이 중요하다. 네일 스티커 및 인조 손톱의 인기 요인도 간편하게 예쁜 손·발톱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집에서 관리할 경우, 니퍼, 푸셔, 파일

등의 손톱 정리용 소도구로 직접 손톱을 정돈 한 뒤, 네일 스티커나 틱을 붙을 뿐이다. 이후 끝부분만 손톱 모양에 맞게 다듬으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당일 옷 코디와 컨디션에 따라 간편하게 손·발톱 색상과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또 네일숍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를 충족시키면서 20~30대 여성을 넘어 40대 이상 여성 소비자에게도 인기가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1초 성형 네일’로 인기 있는 브랜드 ‘데시디바’가 있다. 예쁜 색상과 다양한 디자인, 쫄쫄한 밀착력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과감하고 화려한 네일 스티커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네일 소도구와 스티커, 인조 네일 등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위생·안전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과 SNS 상에도 셀프 네일 부작용에 대한 후기가 점차 늘

어나고 있다.

네일 소도구가 일회용이 아닐 경우 소독 등을 통해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상처가 나거나 굵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네일 스티커나 인조 네일의 경우, 자주 사용할 경우 손톱이 약해지거나, 탈부착 시 손톱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사용법과 가성비 높은 가격대로 구성된 네일 셀프케어 제품들은 당분간 꾸준히 여성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도 더욱 다양한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랄라블라 관계자는 “최근 집에서 직접 손톱과 피부관리를 즐기는 홈케어 쪽이 증가하면서 셀프네일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며 “랄라블라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상품들을 기획하며 고객들의 만족감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낮보다 밤에 잘 팔리는 ‘편의점 디저트’

오후 10시에 가장 많이 팔려
디저트, 야식·안주 등 다양화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가장 잘 팔리는 시간대는 언제일까.

5일 편의점 CU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상품의 올 상반기 시간대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디저트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10시로 나타났다.

디저트의 시간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오후 10시(8.3%)가 가장 높았고, 오후 9시(7.7%), 오후 6시(7.3%), 오후 8시(6.8%), 오후 11시(6.7%)의 순으로 높은 매출 비중을 보였다. 오후 8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시간대가 모두 매출 상위권에 올랐고, 그 비중도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야간에 디저트 수요가 집중됐다.



CU가 출시한 블루베리생크림 케이크(왼쪽), 망고 크림 케이크. /BGF리테일

반면, 점심 식사 이후 오후 시간대(오후 2시~5시)의 매출 비중은 21.2%에 그쳤다. 특히, 오후 2시의 매출 비중은 심야로 접어드는 자정보다 0.5% 더 낮았다. 식후 먹는 디저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의외로 주간 시간대의 매출이 미미한 것이다.

이 같은 판매 추이는 낮 시간대에는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등 소비 채널이 분산되는 데 반해, 저녁 이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소비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분석된다.

또한 편의점 디저트는 가성비가 높고, 메뉴의 다양화로 간식, 야식, 안주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구매가 가능해 야간 매출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CU는 이러한 구매 패턴을 분석해 소비자들의 숨겨진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디저트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밤에도 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 디저트 2종 ‘망고 크림 케이크(노란맛)’와 ‘블루베리 생크림 케이크(보라맛)’도 내놨다.

BGF리테일 스낵식품팀 김신열 MD는 “올해 상반기 디저트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될 정도로 편의점 디저트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맞춰 시즌별로 색다른 디저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취향대로 골라먹는 제철 복숭아

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제철 복숭아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1일까지 전 점포에서 청도, 임실 등 유명 산지에서 수확한 제철 복숭아를 1박스 9900원에 판매한다. /연협뉴스

‘장마 뒤 무더위’... 롯데마트가 책임진다

11일까지 일주일간 기획전 진행

롯데마트가 장마 뒤 무더위를 맞아 11일까지 일주일간 전점에서 복숭아, 자두 등 제철 먹거리 기획전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무더위 맞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캠핑철을 맞아 구이 페스티벌을 진행해 호주산 소고기,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온라인몰인 롯데마트몰을 통해서도 빙수기와 빙수재료, 여름 시즌 침구 등 무더위 관련 상품을 연중 최저가 수준에 선보인다.

기상청 국가기상종합정보 날씨누리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으며

평균기온은 평년 23.1~24.5°C 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 67.9~98.5mm보다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며칠간 태풍의 영향으로 이어진 장마에 이은 무더위가 시작돼 롯데마트가 관련 기획전을 진행하는 것.

우선, 롯데마트는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청도, 임실 등 유명 산지에서 달고 잘 익은 복숭아를 선별해 ‘부드러운 복숭아/아삭한 복숭아(5~8입/1박스)’를 각 9900원에 선보인다. 또한 맑은 공기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달고 과즙이 풍부하며, 우수농산물인증증을 획득한 ‘GAP 와촌 자두(800g/1팩)’를 6900원에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합리적 가격에 맞보는 테일러 아로니아 주스

자연건강식품기업 테일러팜스는 인기 상품인 테일러 아로니아 주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고 있다. 테일러 아로니아 주스는 전세계 생산량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폴란드산으로 최고품질의 엄선하여 보존료, 색소,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100% 주스다. 주스 1병에 생아로니아 열매가 1000알 분량을 함유하고 있어 깊고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하루 1~2번 한병에 80~100ml정도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아로니아에 함유된 타닌 성분으로 인해 떫은맛이 느껴질 수 있으니 식후에 복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맥스·호텔스컴바인 공동마케팅

‘썸머 맥스홀릭’ 콘셉트 프로모션

하이트진로가 맛있는 맥주 ‘맥스’와 글로벌 호텔 검색엔진 ‘호텔스컴바인’이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썸머 맥스홀릭’ 콘셉트 아래 맛있는 맥주와 함께 시원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사는 맥스 브랜드와 호텔스컴바인 캐릭터 이름이 동일하고 배우 박서준이 모델로 활동중인 점, 주요 타겟이 여름 휴가족이라는 점에 착안해 공동 마케팅을 기획하게 됐다. 주류 브랜드와 호텔 검색엔진과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를 기념해 ‘맥스 스페셜 6팩 패키지’ 제품을 출시했다. 355ml 6팩 묶음 패키지에 호텔스컴바인 캐릭터 맥스를 활용한 디자인을 적용해 색다른 느낌을 더했다. 스페셜 패키지는 여름철



하이트진로가 맥주 맥스와 글로벌 호텔 검색엔진 호텔스컴바인이 함께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한정 판매 예정이며 전국 대형마트 등 지정채널에서 판매한다. 이 밖에도 호텔스컴바인 제휴호텔 내 프로모션, 소비자 대상 이벤트 등을 진행, 브랜드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신세계푸드

‘올반’ 신메뉴 40종 선보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한국식 캐주얼 다이닝 뷔페 ‘올반’이 여름철을 맞아 건강식으로 구성된 신메뉴 40종을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건강식으로는 바닷장어에 간포소스를 곁들인 ‘원기회복 간포장어’, 대구 가마살과 각종 나물을 매콤하게 양념한 ‘매콤 대구 가마살 시래기 찜’, 원기 회복 보양식의 대명사인 ‘우리인삼 닭죽’ 등이 있다. /김민서 기자

세븐일레븐

‘명란크림스파게티’ 출시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조리면 구색 강화에 나섰다. 세븐일레븐은 조리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명란을 활용한 ‘명란크림스파게티’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의 올해 상반기 조리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4%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명란젓은 대중적으로 즐겨 찾는 젓갈 반찬류 중의 하나다. 다른 젓갈과 달리 특유의 고소함과 담백함이 특징이다. /김민서 기자



무자비한 놀이
나타났다!

통다리살 치킨버거

T-REX

티렉스 ₩3,500

New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 판매 제외

서울시민 한달 143만원 소비... 서초구 202만원 1위

신한銀, 생활금융지도 소비편
60대 현금·40대 카드 사용 많아
강남구 195만원·용산구 161만원
사회초년생들 한달 150만원 소비

서울 자치구 25개 가운데 서초구의 소비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여소득자 중에서는 직장이 중구에 있는 이들의 소비수준이 높았다. 현금은 60대가, 신용카드는 40대, 체크카드는 20대가 주로 썼다.

신한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서울시 생활금융지도 소비편'을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개인 고객 131만명의 자료를 토대로 제작됐다. 이중 급여소득자는 88만명이었다. 소비는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렌탈비 등 고정성 소비와 현금, 의료비,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등 변동성 소비로 구분해 분석했다.

서울시민의 한 달 소비금액의 평균은 143만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가 소비가 가장 두드러졌다. 서초구가 20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195만원, 용산구 161만원, 송파구 156만원 순이었다.

서초구 가운데 반포동이 22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에서는 압구정동이 302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에

서는 도곡동(244만원)과 대치동(203만원)의 소비수준도 만만치 않았다.

또 급여소득자의 한달 소비금액은 179만원이었다. 직장이 중구에 있는 급여소득자의 한달 소비금액이 24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로구 238만원, 강서구 235만원, 영등포구 234만원, 서초구 23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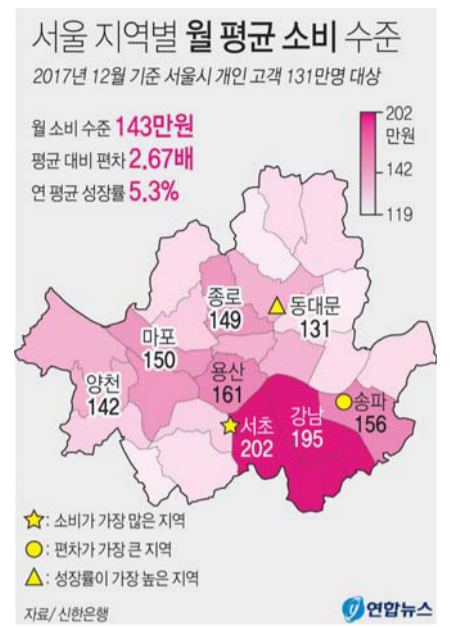
사회초년생의 소비금액은 월 150만원이었다. 사회초년생의 소비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항공사와 공항 등이 있는 강서구 공항동(231만원)과 기업 본사가 많은 중구 장교동(225만원)이었다.

항목별로는 서울시민은 공과금에 4만원, 현금으로 20만원, 신용카드로 76만원, 체크카드로 26만원을 썼다. 이중 현금

과 신용카드 소비는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가 28만원, 11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체크카드는 관악구가 28만원으로 최고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165만원), 30대(163만원), 60대(129만원), 70대(93만원), 20대(85만원) 순이었다. 20대 소비수준이 제일 높은 자치구는 관악구와 강서구로 97만원이었다.

현금소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60대가 5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용카드는 40대에서 9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체크카드의 경우 20대가 3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왕십리역~상계역 '동북선 철도' 내년 착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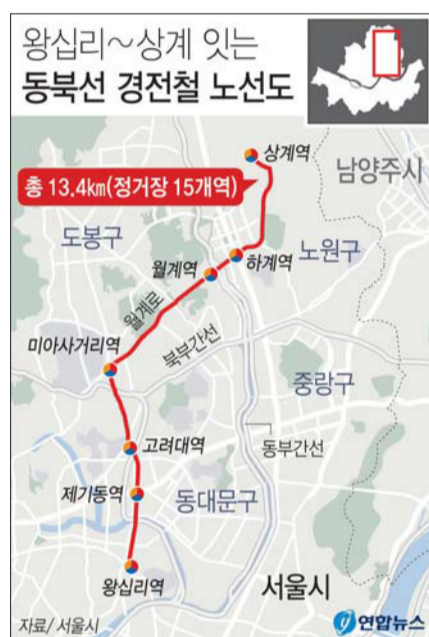
16개역 총 연장 13.4km 지하에 건설
BTO방식 추진... 2024년 완공 목표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서울 동북권 총 16개 역을 잇는 '동북권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이 본격도에 올라, 내년에 착공될 전망이다.

이 동북권 철도는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도시철도 소외 지역을 관통한다. 왕십리역~제기동역~고려대역~미아사거리역~월계역~하계역~상계역까지 총 연장 13.4km로, 전 구간 지하에 건설되며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이 들어선다.

5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시장과 현대엔지니어링 성장록 대표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동북선경전철(주)가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동북선경전철(주)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대표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현대로템, 두산건설, 금호산업, 갑을건설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동북선경전철(주)의 대표회사다. 협약식에는 주요 출자자인 현대로템 김승태 대표이사, 두산건설 이병화 대표이사, 금호산업 서재환 대표이사, 갑을건설 박찬일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동북선경전철(주)과 협상에 들어간 지 2년6개월 만에 실시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시는 연내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동



시에 착공을 위한 각종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착공, 2024년 완공이 목표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 동북선경전철(주)와 협상에 들어가 작년 7월 최종협상을 완료했다. 이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등 내부심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민간이 건설하고 직접 운영해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다. 동북선경전철(주)가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서울시에 양도되며, 동북선경전철(주)가 30년 동안 직접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은 없다. 총사업비는 약 9895억 원(2007년 1월 기준)으로, 동북선경전철(주)가 50.1%를 부담하고 나머지 49.9%는 재정(시비 38%, 국비 11.9%)이 투입된다.

동북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왕십리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현재 약 46분에서 약 22분까지 단축(24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계역(4호선)에서 왕십리역(2·5호선)까지는 환승 없이 25분 만에 주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4호선→2호선 환승으로 37분 정도가 소요된다. 지하철 1호선(제기동역), 4호선(상계역, 미아사거리역), 6호선(고려대역), 7호선(하계역), 경원선(월계역), 2·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왕십리역) 등 9개 노선(7개 정거장)으로 환승이 가능해 이용 시민들의 편리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일일 이용객이 21.3만 명(30년 평균)이 예상되어 출·퇴근시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등의 이용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맺음으로써 동북권 주민 숙원인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 동북권 지역의 도시철도 이용편의가 향상되고 교통혼잡이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서울 냉면값 9000원 육박... 1년새 11% ↑

평균 8808원... 인상률 1위 차지

여름을 책임지던 서민 음식 냉면 가격이 9000원에 육박하며 1년 새 10% 넘게 오르는 등 주요 음식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살펴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대표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7개 가격이 1년 새 올랐고 1개만 지난해와 같았다. 가격이 내린 메뉴는 하나도 없었다.

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가격은 한 그릇 평균 8808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962원)보다 10.6%(846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8개 주요 조사 품목 가운데 냉면 가격 인상률은 1위를 기록했다.

삼겹살 가격은 200g 당 1만6489원으로 지난해보다 5.6%(868원) 올랐으며, 김치찌개(2.6%), 갈국수·김밥(1.8%), 비빔밥(1.4%), 삼계탕(1.1%) 순으로 많이 올랐다. 8개 품목 가운데 자장면만 유일

하게 4923원으로 지난해와 가격이 같았다. 지난달 음식 가격은 전월(5월)과 비교해서도 냉면과 삼계탕이 각각 0.4%와 0.5% 올랐으며 나머지 6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지닌 가정간편식 매출은 급성장세를 보였다.

CJ제일제당의 간편식 냉면은 지난달 8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월 매출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했고, 특히 최고 매출이 발생한 7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 3월 새롭게 선보인 '평양물냉면'과 '시원한 배 물냉면'의 인기도 한 몫 했다. 특히 '평양물냉면'은 서울에서 유명한 한 평양냉면 맛집과 육수 맛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부 유통채널에서 품질상태까지 발생할 정도였다. 이 제품은 지난 달에만 15억원 이상 판매되며, 연간 130억원 규모의 매출을 자랑하는 CJ제일제당의 대표 간편식 냉면 제품인 '동치미 물냉면'의 인기를 이을 것으로 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연초 간편식 냉면의 연간 매출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성장한 310억원으로 목표를 세웠지만, 판매 호조로 목표치를 360억원으로 높였다. 전체 시장도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하세요"

노후고시원 22곳 스프링클러 무료 설치

서울시, 임대료 5년간 동결해야

서울시가 4억원을 투입해 노후고시원 22곳에 총 1568개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시설이 노후해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다. 시가 무료로 설치해주는 대신 고시원 운영자는 5년 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해당 고시원 22곳은 ▲동대문구(1곳) ▲광진구(2곳) ▲관악구(3곳) ▲강북구(2곳) ▲송파구(1곳) ▲동작구(2곳) ▲은평구(3곳) ▲양천구(1곳) ▲중구(1곳) ▲노원구(2곳) ▲서대문구(1곳) ▲성동구

(2곳) ▲금천구(1곳)다. 취약계층 거주비율,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처음 7곳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192곳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했고, 올해까지 총 33억여 원을 들여 214곳으로 확대한다.

선정된 고시원은 모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곳이어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화재에 취

약해도 공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고시원 운영자들은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되고 5년간의 임대료 동결로 고시원 거주자는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한 고시원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택스 홈페이지 프로그램 무료배포

서울시가 사업자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납부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6일부터 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납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자신고납부 프로그램에 신고내역을 등록하면 온라인 전용계좌가 발급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전까지 사업자들은 지방세를 내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종이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해 왔다.

시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지방세 납부에 들었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세 전자납부에 따라 행정력도 절감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자치구별로 월 평균 5300건의 납부 영수증을 세무시스템에 일일이 수기로 전자 입력해야 했다. 납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 2주가 소요됐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비전자적 납부를 제도적으로 없애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라이프] '다름'에 대한 포용 절실... '속의 민주주의' 돼야 L6



Life

[라이프] 서울시민 143만원 소비 1위는 서초구 L7



1년간 닭 1200마리 투입해 만든 소스 '강렬한 매운 맛'

“Do you know 삼양불닭면?” 국내보다 해외서 더 인기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은 불닭을 콘셉트로 한 매운맛이 특징인 볶음면이다. 매운맛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불닭볶음면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

불닭볶음면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다. 2013년부터 수출을 시작한 불닭볶음면 시리즈 제품은 현재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등 약 6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삼양식품의 지난해 수출액은 205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4584억원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수출액 가운데 85%인 1750억원을 불닭면이 책임졌다. 이는 국내 매출액(750억원)보다도 약 2.3배 많은 수준이다.

덕분에 불닭면 시리즈 수출액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 수출액이 66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삼양식품은 2016년 하반기부터 불닭면 시리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외국인들이 극한의 매운맛을 도전하는 '떡방' 동영상 콘텐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행하며 인지도가 급속히 높아졌다.

◆국내시장에서의 불닭브랜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2012년 4월 출시됐다. 강렬한 매운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물보다 볶음면에 초점을 맞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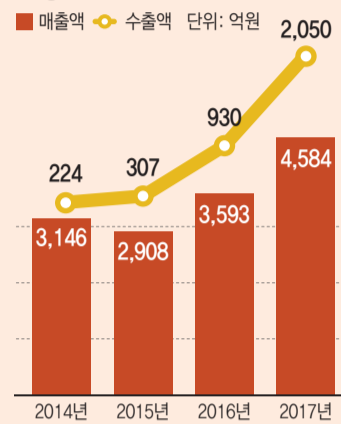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2011년 초 우연히 서울 명동의 매운 불닭 음식점 앞을 걷다가 사람들이 뿔뿔히 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 강렬한 매운 맛도 라면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매운맛, 닭, 볶음면'을 모티브로 마케팅 부서, 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전국의 유명한 불닭, 불닭집, 닭발 맛집들을 탐방하여 직접 시식하고 세계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매운 고추를 연구해 한국식의 '맛있게 매운 소스'를 개발해냈다. 이렇게 불닭볶음면은 약 1년간의 연구개발 기간 동안 매운 소스 2톤, 닭 1200마리가 투입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2012년 4월 출시됐다.

당시 매운 볶음면이라는 제품군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소수의 젊은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어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발됐다. 하지만 출시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인기를 끌었고, 현재는 삼양식품의 대표적인 라면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국내 매운 라면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매운 맛이 대중적인 맛으로 인식되면서 매운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점점 더 강한 매운맛을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한 삼양식품에서는 2017년 1월 기존 불닭볶음면 맵기의 두 배 가량인 '핵불닭볶음면'을 한정판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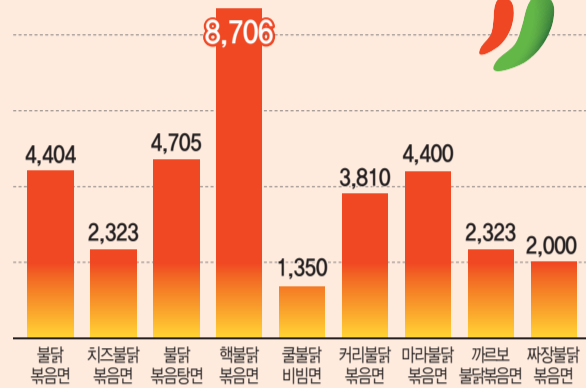
또한 모디슈머 열풍으로 자신만의 레시피로 매운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불닭볶음면+치즈, 불닭볶음면+짜장라면 등 다양한 조리법들이 인기를 끌었다. 삼양식품에서는 여러 가지 매운맛

삼양식품 매출·수출액 추이



불닭볶음면 제품별 스코빌지수(SHU)

*스코빌지수: 고추류의 매운 정도를 나타낸다. 고추류에 포함된 캡사이신 농도를 스코빌 매운 단위(SHU)로 계량하여 표시한다.



자료/삼양식품



삼양식품과 사이공 콥 MOU.



삼양식품 인도네시아 불닭볶음면 프로모션 모습.

삼양식품

불닭 모티브로 볶음면 연구해 다양한 매운 고추로 소스 개발

출시 이후 엄청난 반향 일으켜 까르보·짜장 등 에디션 출시도

수출 시작 후 전세계 SNS서 인기 할랄 인증 받아 할랄푸드시장 진출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인지도↑

이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불닭볶음면의 확장제품을 꾸준히 선보여 오고 있다.

2012년 4월 출시 이후 2017년까지 불닭 브랜드 총 판매 개수는 대략 10억1000만 개 수준으로 지난해만 4억4000만개가 판매됐다.

삼양식품은 불닭브랜드 10억개 판매를 기념해 지난해 12월 18일 까르보불닭볶음면을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출시 후 일평균 45만개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1월 기준 불닭시리즈 중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까르보불닭볶음면은 한정판기간인 3월까지 월 평균 1200만개(총 3600만개 생산)가 판매되는 기록을 세우며 큰 인기를 끌었다. 생산 종료 이후에도 정식 출시 문의가 끊이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힘입어 5월 18일 정식 출시됐으며, 이를 기념해 카카오프렌즈와 컬래버레이션한 '까르보불닭 어피치 에디션'을 선보였다. 까르보불닭볶음면은 정식 출시 이후에도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이 계속 이어져 월 1000만개 수준의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8일에는 오리지널 불닭볶음면 출시 초기부터 대표적인 모디슈머 조리법으로 인기를 끌었던 '불닭볶음면 + 짜장라면' 레시피를 제품화해 '짜장불닭볶음면'을 출시했다. 짜장불닭볶음면은 까르보불닭볶음면에 이은 두 번째 레시피 활용 제품으로, 월평균 300만개 수준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삼양식품은 분기 최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2018년 1분기 매출액 1249억원, 영업이익 172억원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월 단위 기준으로 3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46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해외시장에서의 불닭브랜드

불닭볶음면은 2013년부터 수출을 시작했다.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2016년 하반기, 소비자들이 스스로 만들고 공유했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불닭볶음면을 접한 소비자들은 기존 제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중독성 강한 극한의 매운맛에 호기심을 느끼게 됐고,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을 따라서 업로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가 생성되고 퍼지게 되면서 불닭볶음면의 인지도가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게 되었고, 누구나 한 번쯤은 맛을 봐야 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단기간의 유행으로 남을 수도 있었던 불닭브랜드의 인기가 현재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수출 초기부터 KMF 할랄 인증을 획득하여 세계 무슬림 인구의 60% 이상이 살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볶음면, 매운맛이 익숙한 동남아 지역은 불닭볶음면 수출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곳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등 수출국가가 점차 확장되어왔다. 삼양식품은 2014년 KMF 할랄 인증에 이어 2017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을 받아 2018년부터 할랄푸드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둘째, 제품 개발을 통한 불닭브랜드의 확장이다.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힘입어 치즈불닭볶음면, 콜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등 차레로 제품화했고, 커리불닭볶음면(동남아), 마라불닭볶음면(중국)과 같은 현지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수

출전용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오리지널 불닭볶음면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으면서도 색다른 매운맛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로 폭 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기존 불닭볶음면의 매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셋째,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초 해외마케팅팀을 신설, 중화권·아시아권·미주권 등 지역별로 세분화해 현지 소비자와의 점점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SNS 채널을 활용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전략기획팀과 해외영업지원팀을 통해 각 시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나라별로 진행되는 식품박람회 참여해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활동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불닭브랜드가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고, 이와 같은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국내 시장에서도 조명을 받는 계기가 됐다. 커리불닭볶음면, 마라불닭볶음면과 같이 해외 수출용으로 기획 출시된 제품을 구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구하는 국내 소비자들도 있었고, 국내 출시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청이 많아 내수 시장에 선보이게 되기도 했다.

현재 불닭볶음면은 중국, 동남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태국 등 지역), 미주, 유럽 등 6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까르보불닭볶음면'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수출국과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